朝鮮日報
第二夕刊 十四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東亞 참기름 京城西本町 東亞製油所

獨空軍俄然活動開始

蘇格蘭北方을空襲

巴里、佛東北部에도飛來

【倫敦十三日發同盟】獨空軍은 最近 스코틀랜드北方에 잇는 要衝쉐틀란드島를 目標로 盛히 空襲을 反復하고잇는데 十三日夜도 獨飛行機四機가 쉐틀란드島에 飛來하여 爆彈을投下하엿다 爆彈數個는 海中에落下하엿스나 數個는陸上에 炸裂、附近農家의 琉璃窓은 그震動으로 粉碎되엿다 英海軍省은 獨空軍의 襲來에關하여 同日左와如히發表하엿다

獨空軍은 十三日二回에亘하여 쉐틀란드島를 攻擊해왓는데 我軍의 高射砲隊에 擊退되엿다 爆彈은 投下되엿스나 我方의 損害는업섯다

【巴里十三日發同盟】十三日早朝 獨逸機飛來에繼續하여 同日午後再次 國籍不明의 飛行機數臺가 巴里郊外에 飛來하엿다 佛軍防空隊는 곳高射砲로 攻擊을加하여 이를擊退하엿는데 市民三名은 高射砲彈의破片에依하여 負傷하엿다

【巴里十三日發同盟】佛軍司令部十三日夜發表=十二日夜부터 十三日朝에걸처 佛東北部方面에 敵機若干이 飛來한것 以外는 地上에서 例에依하여 兩軍偵察隊의 活動이잇섯는데 特히 자르東部에서는 活潑하엿다

和平은依然無望

히總統、二三日內兩元首에回答

【倫敦十三日 長谷川同盟特派員發】白耳義 和蘭兩國의 和平提唱에對한 英國皇帝及 佛國大統領의 回答은 全英國에多大한反響을일으켜 十三日附朝刊의"타임스"紙는 社說을揭하여 모두右回答을 支持하고잇는데 獨逸이白耳義 和蘭兩國의 勸告에應하여 合理的解決을 提案할것가트면 英國으로서는 언제라도 이를考慮할 用意가잇다하고 依然和平의門戶를 閉鎖하지는안헛다 그러나 現在까지의形便으로보아 히틀러總統이 英佛이 考慮할수잇는것가튼 條件에서 和平에應할 兆候는 全然보이지안코 特히佛大統領이 波蘭 체코 墺地利의 復舊를 明白히條約化 하고잇는點이 重視되는一方 英佛의回答에接한 白耳義 和蘭兩外相은同夜곳 白耳義 和蘭國境의 부레다市에會合 回答內容에 基하여 意見을 交換하엿다는데 白耳義和蘭兩國은 更히 어떠한 手段에依하여 和平實現에 努力을繼續할것으로 豫想되기는하나 그 成果의 可能性은 前의 白耳義 和蘭 和平提唱時보다도 可能性이업다고한다

【伯林十三日發同盟】獨政府는白耳義、和蘭兩國元首의 和平提議에對하여 愼重히 이를考慮中인 旨를 이미 白耳義、和蘭兩國에 通達하엿는데 十三日 官邊으로부터 確聞한건데 獨政府는 이二、三日中에 白蘭兩國政府에對하여 更히 正式回答을 發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回答內容에關하여는 英佛兩國은 이미和平提議를 婉曲히拒絕하고 戰爭繼續의決意를 表明하고잇는데鑑하여 獨逸側態度도 自然明瞭하다고한다 即 獨政府로서는 히틀러總統의 十月六日 演說內容을 反復하여 獨逸의 和平에對한 誠意를披瀝하는同時에 英佛兩國이高唱하는 나치스政權打倒의 野望과 挑戰的態度를 暴露攻擊할것으로 보인다

獨潛水艦에게 英船一隻被擊沈沒

【암스테르담十三日發同盟】西浦部의 뉴-고호로부터 암스테르담에 到達한 情報에依하면 英汽船포후자노號(一、三四六噸)은 大西洋上에서 獨潛水艦의 砲擊을 바더 擊沈되엿다고한다

獨汽船二隻擊沈 英海軍省發表

【倫敦十三日發同盟】英國海軍省은十三日獨汽船二隻을擊沈한旨를左와如히 發表하엿다

英國海軍은獨逸汽船메크렌부르號(七、八九二噸)와 라나號(六〇三八噸)의 二隻을擊沈하엿다 兩汽船의乘組員은 英國船에게 救助되엿다

獨和國境의 獨逸市街는平靜

【펜트하임(和蘭國境)十二日同盟特派員發】一觸卽發의 危機를傳하는 和蘭國境線一帶의 實情을 視察하고자 記者는 十二日 和蘭行汽車를타고 急遽伯林을出發하엿다 目的은 和蘭國境에 接한獨軍第一線陣地에잇다 그러나 十一日부터 國境連絡이 特殊關係者를 除하고는 거의 禁止狀態이다 이때에 果然 어데까지 갈수잇슬지 모르는 記者는 國境에 가장 가까운 펜트하임行 車票를 사가지고 命令이잇슬때까지 갈려고 西로 西로 갓다 記者가탄 急行列車는 國境으로 向하는 軍人以外의 一般乘客은 別로업섯다 우리가탄 汽車前後의 線路上에는 軍用列車가 列을지으고잇섯다 停車中에는 快速部隊의 野砲와 自動車가보엿다 此間에 炊事車輛重車 電信車等이잇고 各種의 機械化된最新編成으로 前線에 向하고잇다 連絡한客車에는 兵士들이 滿載되어잇다 驛에 停車할때는 軍歌를合唱하는等 매우 元氣가잇서보엿다 그들은勿論 무슨目的으로 어데로 移動하는지를 모른다 記者는 절은一中尉를보고 『獨逸은 和蘭을攻擊할가』라고 質問해보앗다 한즉 이中尉는 躊躇하고 『그것은 總統의 胸中에잇는것으로 余等들이 알배아니다 그러나 獨逸人은 할때는 徹底的으로하는 國民性인줄을알어주기바란다』고하엿다 웨젤河를지나 한노버市를 넘으니 列車의運行은 去益緩慢하여다 北歐의 겨울하늘은 속히저문다 午後五時인데 벌써 날은 저므러 燈火管制下에 列車는 更히西進한다 午後八時가 까워 列車는 갑갑한小驛에 停車하엿다 더멀리는가지안는다고한다 우리는 和蘭國境으로부터 僅僅 數키로의 펜트하임市에到着한것이다 여기는 人口 三千의 어떤 [illegible] 비가올듯한 [illegible] 咫尺을分[illegible] 여기에서 兵士나 市民은 모두[illegible] 누구도 和蘭과의[illegible] 하지안는다 市街의 카페에서는 兵士들은 즐거게 술을주고잇다 [illegible]

東久邇宮殿下

十四日午前御歸還

【東京電話同盟】노몬한事件時에 國境前線의 바르샤갈高地에 御出陣 敵機의猛爆下에 部隊長으로서 御奮戰 御武勳을세우시고 今番陸軍砲工學校御入學次 御歸還하신 東久邇宮盛厚王殿下께서는 十四日 午前八時三十分 東京驛에 御歸還하셧다 驛頭에는 北白川宮永久王殿下 李鍝公殿下를비롯하사 長谷川東久邇宮御附武官 各宮家御使、畑陸相、澤田參謀次長、古莊大將、阿南陸軍次官、宇佐美中將、馬場砲工學校長、山室士官學校長、太田中將等 陸軍將星多數가 出迎하엿다 殿下께서는 조금도疲勞하신 模樣도보이시지안코 出迎하신 北白川宮殿下 李鍝公殿下와 반갑게 人事를하신후 陸軍將星에 御目禮를하시면서 一旦驛貴賓室에 入하사 御少憩後 오랫만에 麻布市兵衛町의 御殿에 御歸還하셧다

蘇芬會談再次停頓

芬代表、本國撤還

芬蘭背後에獨逸이潛在?

【헬싱키十三日發同盟】莫斯科의 蘇芬會談은 드디어中止되어 芬蘭側代表는 十三日夜 莫斯科를 撤退하기로 되엿는데 에르코外相은 十三日 新聞記者團과의會見에서 如左히말하엿다

『莫斯科에서의 蘇芬會談은 또다시 停頓되어 芬蘭側代表는 十三日夜 本國으로 歸還하기로決定하엿다 會談再開 與否는 代表歸國後 詳細한報告를 檢討한다음蘇芬兩國의 各其 交涉再開의 意圖有無에따라 決定될것이다 會談을이대로 無期限中止함은我等의 意圖하는배아니나 會談의 續行이不能한바에 代表가莫斯科에 滯留함은 不必要한일이다』

確聞하건대 芬蘭政府는 十三日 午前閣議에서 代表撤還을 決定 會談續行希望을 發見할수업스면 本國에 歸還하라는 訓令을 發하엿다고한다 그리고 芬蘭國民一般은 過去五週間 交涉決裂을 覺悟하고 對蘇防備를 進行하고잇섯스므로 會談中止의 報道에도 動搖를 보이지안코 政界一般도 依然 今後의 發展은 蘇聯의態度如何에 잇다는 强硬態度를가지고잇다

【莫斯科十三日發同盟】三回에亘하여 莫斯科에서열린 蘇芬會談은드디어 最後의難關에 逢着하여 全然停頓狀態에 陷入되엿스므로 芬蘭代表一行은 十三日午後九時○五分 莫斯科發本國으로 撤歸하기로되엿다 會談이決裂된 原因에對하여는 여러가지 所聞이잇는데 蘇聯으로서는 武力에 呼訴하여 解決하려는 決意는업다는 意見이 有力하여 交涉을 完結시키려고 腐心한痕跡도 보이는데 他面北歐工作을 一擧에 完成하려고 無理하게 强迫한빗도 보이는一方 芬蘭의 强硬態度의 裏面에는 獨逸이 相當히 活躍하고 잇다는 觀測도잇다

英駐屯軍撤退後는

米"保護者"로登場

英米、兩國首都서交涉開始

【倫敦十三日發同盟】英佛兩國은 北支駐屯軍一部撤退를決定하엿는데 確聞한바에依하면 英政府는 右措置와同時 英國이 對獨戰爭에 全力을傾注하고 一方米國으로 하여금 在支英權益의『一般的保護者』로登場 目的으로서倫敦及 華盛頓兩地에서 米國과交涉을 開始하엿다고 한다 今番撤退로 決定한 北支의 英駐屯軍은 一部는 本國으로 一部는 香港及新嘉坡로 移駐시키기로되엿다고 傳한다

【華盛頓十三日發同盟】英佛兩國政府가 北支로부터 駐屯軍을撤退하기로되엿다는 報道에 對하여 이것이 米國의立場에如何한 影響을 주느냐는 質問에答하여 헐國務長官은 十三日米國의 政策은 從來와다름이 업다고만하고 더말하기를 避하엿다 華盛頓의 一般印象은 今番撤兵은勿論歐洲의 事態에 依하여此等軍隊를 歐洲戰線에使用할것이한가지 理由이며 他方日本과英佛兩國과의 關係가 漸次好轉되고잇는것이라하여 注目되고잇다 헐國務長官은 十三日夜華盛頓出發北部諸州로 向하여 同地에서一週間乃至十日間 休養할豫定이다 이미臨時署理도 마친스므로 헐國務長官이 休暇를 한것은 別로 新奇한일은아니나 最近의 米國船舶의 파나마 船籍移轉問題의 紛糾等에鑑하여 暫時世界視聽을 避하는 得策이라하여 이問題가 原因이된것이나 아닌가고보고잇다 그리고 右船籍移轉問題는 루즈벨트大統領이 헐國務長官의 主張에 贊成하여 移轉을不許可로할는지 或은 船舶局의立場을 支持하여 移轉을認可할는지不明한바 이問題는 暫時不問에附한채 政府는 오로지輿論의 態度를 엇고저 腐心하고잇는模樣이다

權益確保를注視

佛北支駐屯軍撤還發表

【巴里十三日發同盟】佛政府는十二日 北支駐屯軍의 撤退를發表하엿는데 佛政府도 英國과同一行動을取하여 北支駐屯軍의 大部分을 本國으로 撤還케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十三日 陸軍省으로부터 다음가치發表되엿다

歐洲戰爭의 勃發에伴하여 英佛兩國은 一九〇一年의 團匪議定書에基한 北支駐屯軍의一部를 撤退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런데 駐屯軍의 大部分은近近本國으로 歸還하기로 되엿다 但佛政府는 今後라도 다음諸項에 對하여는 充分한注意를할터이다

一、法權其他에 依한 英佛兩國의 權益確保

一、日本軍占領地域에 잇서서의 上記權益의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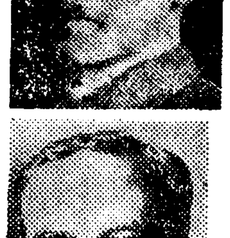
一、天津 英佛租界의 警備其他를爲하여는 아직 若干의分遣隊를 天津에駐屯시킬터이다

이措置는 英佛以外의 團匪議定書調印國에도 通達한것이다 그러나 上海에서의 佛駐屯軍은依然 從前의兵力을 維持하는一方 廣東과 漢口에서의 駐屯軍의兵力輕減에 對備하여 最近警察部隊의 增强이잇섯다

滿蒙國境會議

今月末에는開催豫定

【莫斯科古賀同盟特派員發】今日 莫斯科에서열린 東鄕、모로토프 會談의中心은 近近치타에서 열릴國境會議에 附議할 地域問題其他로 代表의 氏名도 正式으로 相互通告하엿다 會議는 日滿代表의 치타到着을 기대려 今月末에는 開催될터인데 日本側으로부터 久保田哈爾濱總領事 滿洲로부터는 龜山外務局政務處長 그리고 蘇聯側으로부터는 旅團參謀長 마보그다노프氏 外蒙으로부터는 共和國副總理 쟘사론氏가 出席할터이라한다



(寫眞은 東鄕大使(上)모로토프)

上海駐屯軍도

撤還을考慮

英外務省、記者에게言明

【倫敦十三日發同盟】英佛兩國政府는 十二日北支駐屯軍 撤退를 發表하엿는데 英國外務省에서는 十三日U・P・記者에 對하여 將來의情勢如何에 따라서는 上海駐屯軍撤退도 考慮할것을 左와如히示唆하엿다

英國駐屯軍의 支那로부터의撤退는 政府發表대로 現在는北支에 限하고잇스나 將來情勢如何에 따라서는 現在上海에 駐屯하고잇는 英國軍隊撤退의可能性도 或은考慮할터이다

雲南方面猛爆

【上海十三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後四時發表

一、海軍航空部隊는 지난十一日廣西省貴縣을襲擊 同地飛行場及附近倉庫群에 直擊彈을 더저모두 大破케하엿다

二、同日 他航空部隊는 廣州灣東方海岸의 敵據點을 各處에서 攻擊하여 電白、水東及博賀에서 敵軍需品倉庫群、軍事施設과 小型舟艇群을 破壞하여 多大한 戰果를거두엇다

三、十二日 海軍航空部隊의 有力部隊는 惡天候를 무릅쓰고 雷州半島의 東北方의 要地高州及梅菉을攻擊、敵의 猛烈한 地上砲火를 무릅쓰고 同地附近陣地와 軍需倉庫等을爆破하엿다

伊、土間友好協定

兩國政府、近近交涉開始

【羅馬十三日發同盟】東南歐中立維持에 積極的關心을 가지고잇는伊太利는 過般 希臘과의間에 交換公文을發表하엿는데 十三日 앙카라로부터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伊太利政府는 更히土耳其와의 間에도 同樣協定締結을 目的하고잇서 伊土兩國政府는 近近 伊土協定締結의 交涉을 開始할터이라고傳한다

【羅馬十二日發同通】東南歐洲維持에 積極的關心을가지고잇는伊太利는 過般希臘과의間에 交換公文을發表하엿는데 十二日앙카라로부터 當地에達한 情報에依하면 伊太利政府는 更히土耳其와의間에 商業協定締結을 希望하고잇서 伊土兩國政府는 近近 伊土兩國協定締結의 交涉을開始하게되엿다고 傳한다

和蘭女王

米公使와協議

【암스테르담十三日發同盟】和蘭女王은 十三日오른바 和蘭米國公使를引見 約三十分에 亘하여 무엇인지協議하셧다 그 內容은 嚴秘에附하고잇는데 白耳義和蘭兩國의 調停時期에 際하여 米國의態度가 問題되어잇는만큼 注目을끌고잇다

駐支各國大使

俄然往來頻繁

【香港十四日發同盟】最近極東情勢의 緊迫化에伴하여 重慶을中心으로 英米各國大使의 往來가頻繁하여 日前重慶으로부터 香港에到着한 英國大使는 十三日 任地上海로 向하여 出港하고 이와前後하여 佛國大使도 이미重慶에서 香港에歸着하고 곧佛國大使는 上海에上陸 行動을 秘密에附하고잇다 우리重慶特派員이 報道하는바에依하면 곧米國大使도 今月中에 重慶에 到着할豫定인데 現在重慶에는 파나우치킨 蘇聯大使만이 남어잇다 그리고 大使館附武官은 前任者로마노프 代身에 꼬린니코프가 任命되엿는데 로마노프는 벌써歸國하엿다고한다

國共關係不穩?

中共、六中全會에不參席

【香港十二日發同盟】窮迫한 現下情勢에 對應하여 內外重要政策을決定할 歷史的 重大性을가진六中全會는 十二日부터 重慶에서開催되엿는데 出席한 國民黨中央執監委員 同候補만으로는 定員數에 達하지안허 中央委員이아닌 各將領及 第三黨인 國家社會黨 中國國家主義 靑年黨等代表와 參政會員等이 特別招聘에應하여 會議에 出席한者를모아 定員不足數를補充하여 豫備會議의 擴大를꾀하고잇다 그리고共産黨側은 最近延安에 撤退하여 重慶政府當局으로부터 [illegible] 今次會議에는共産黨領袖는 一名도 出席하지안는다 前回의五中全會에는 多數共産黨領袖가出席하엿는데 今回의 六中全會의 이事實은 國共兩者間의 關係가 不穩한것을 示唆하는것이라하여 注目되고잇다

人事・集會

◆中村兩武氏(前京畿道警察部高等課長)退官人事次來社 十八日

◆北村留吉氏(京畿道保安課長)新任人事次來社

◆李台雨氏(滿鮮日報記者)十一日 市內嘉會町四三의一 自宅에서 [illegible]

八面鋒

白、和의 平和提議는 斡旋이아니라 哀調。

◇英佛의 平和拒絶은 拒絶이 아니라 受諾不能。

◇和蘭侵入態勢는 마지노線突破態勢?

◇兼勢란 伯林電報는 和蘭侵入의虛勢?

◇獨軍의 奇襲作戰 英本土上陸을準備。

◇월리암征服王以來 八百年大夢이 現顯?

◇英佛 北支駐屯軍 落葉節에 撤退를發表。

◇本國奔喪 거름인가、東亞事態에 大悟覺해나。

◇學生들은 下宿難、旅宿制度에 學校가責任지라。

◇敎壇에는 敎員難、『사람은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다』

雲南代表龍雲

蔣의中央化工作拒絶

【香港十四日發同盟】雲南省主席龍雲은 數日來雲南土著派各將領을모아 軍事會議를열고 雲南省을 中央化시키려는 蔣介石의陰謀에 抵抗하고자 手段을 考慮中이던바 昨十三日에는 重慶當局에 通電을 發하여 雲南省의 特殊性을 强調하는同時에 重慶當局이 要求하는다음 二點을受諾할수업다고 拒絶하엿다

一、中央軍의 昆明移動과駐屯

一、雲南省政府의 再組織

그리고龍雲은 雲南省各縣長市長을 昆明에召集하여 省政會議를열기로되엿는데 龍雲은 會議를利用하여 그의地位를 强化시킬것으로보인다 이리하여 雲南土著派는 重慶政府內政部長周鍾岳이 蔣介石政府部內에서 雲南의利害를 代表하고잇다고 期待하고잇섯슴에不拘코 蔣介石에게 買收되어 蔣介石의 雲南省中央化工作에 狂奔하고잇슴에 몹시失望하여 激憤하고잇다

小作料統制令

特別委員會서可決

【東京電話同盟】小作料統制에關한 勅令案要綱을 審議할國家總動員審議會 第二回特別委員會는 十三日 午後七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고 前回의委員會에서 委員側으로부터 農地委員會에 司法官을 包含하는것은 僅少하다는것은 하나 朝鮮 臺灣에는 大體如何히하여 適用할생각인가라는 質問이잇서 이에對하여 政府側으로부터 農地委員會의 構成에는 充分注意하겟다 司法官도 構成멤버中에 너흘 方針이다 本勅令의 外地適用에 對하여는 朝鮮은 現在잇는 小作委員會를利用하고 臺灣에서는 市尹街庄長으로하여금 이에 當케하고 特別히 市町村農地委員會는 이를 設置하지 안흘方針이다 라고答하고 更히委員側으로부터小作料統制는 農地調整法에 미칠터인데 政府는 何故로 小作法을 設定하여 議會에서 審議하는것을避하여 國家總動員法에 依하엿는가라는 質問이잇서 이에 對하여 酒井農相은 本勅令案要綱은 小作料의 引上停止에伴한臨時的措置로恒久的措置가 아니므로國家總動員法에 依하엿다고 回答하엿는데 更히 各委員으로부터 土地의 賣買價格의統制 農地委員會의 運用等에 關하여熱心한 意見의質問이나오고 最後로 高田耘平氏로부터 本勅令案要綱中 第三、第四를 削除하여 第五를 修正하라는 動議가 잇자 이에 對하여 伊澤多喜男氏 贊意를表하고 이를議題로하여 審議한結果 中村三之助、淺沼稻次郞兩氏로부터高田氏의 動議에 對하여反對하여 政府原案에 贊成하겟다는 意見의 開陳이 잇고 結局 決議를 한 結果 高田、伊澤兩委員을 除한各委員이 모두 政府原案에贊成 드디어 多數決로써 政府原案대로 可決하게되엿다 따라서 政府는곳總會開催의 手續을取하여 今週中에는 總會를開催 最後的 決定을하여 本勅令의 實施를 急히하기로되엿다

【東京電話同盟】小作料統制에關한 勅令案要綱은 九日의第八回國家總動員審議會總會에서 審議되엿는데 可決에 이르지못하고 結局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여 前後三回나 檢討를거듭한結果 十三日의同委員會에서 겨우 多數決로써 政府原案대로 可決되엿스므로 本勅令實施를 急히하고자 오는十七日午後三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 第九回國家總動員審議會總會를 開催 前田特別委員長으로부터 委員會經過及結果報告를 한후 審議를進行하기로되엿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十四日定例閣議 決定事項

一、海軍工廠令中改正의件

一、朝鮮總督府官制中改正의件

一、朝鮮總督府部內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의件

一、朝鮮取引所稅令中 改正의件(制令案)

一、朝鮮登錄稅令中改正의件(制令案)

一、南洋廳部內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의件

十五日부터
前篇 後篇
死を乘り越えた强き母性愛と、肉親も及ばぬ女の友情が結びついた愛と涙のメロドラマ!!
田中絹代 川崎弘子 高峰三枝子 三宅邦子 夏川大二郎 共演
支那海
クラーク・ゲーブル ウオーレス・ビアリイ ジーン・ハーロウ 主演
貨物船の船長と失戀の薄運女と、海賊の首領とが南支那海に捲き起す壯烈な南海の物語!!
大陸劇場

學生募集
舊名 滿洲自動車學校
改稱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滿洲國公認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奉天商埠十一緯路西五 電話(二)二九四四番

東山莊朝鮮住宅分讓
場所 敦岩町
價額 土地建物共一口 四千圓以上一萬圓迄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黃金町二丁目五五番地・電本1381・1681

朝報案內

急讓

女事務員採用

生徒募集

洋服

タイプライタ アジアタイプ社

賣家住宅

神効藥

임질약 늑막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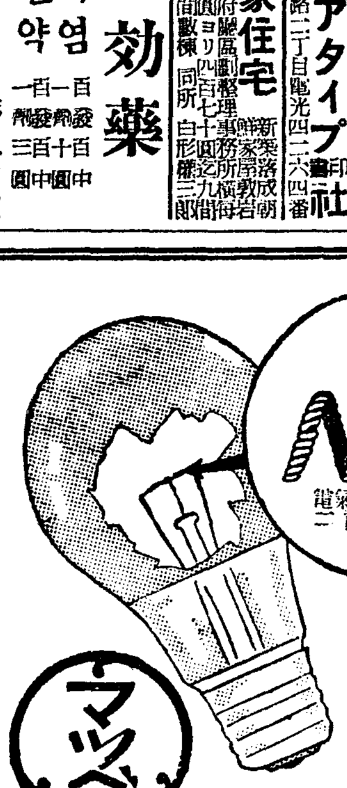
文化住宅設計 建築設計・各機械土木 鑛山圖案製作及トレース 東洋圖工社

富士ケーキ燒機

WANTED
Private Secretary. Must be direct from the Tokyo or Keijo University of Law. Apply giving age and salary required with curriculum vitae. To Sei Kho King, 68 Shosey St., Keijo.

15日(水)ヨリ 18日(土)マデ
3階 新入荷お絞りタオル A・二打 4・00圓 B・一打 2・00圓
2階 別誂婦人和服 ベルベツトコート 特別仕立奉仕(クレープデシン裏) A・105・00圓 B・90・00圓 C・73・00圓 D・72・00圓
1階 別誂紳士冬オーバー 特別仕立奉仕(シルバサテン裏) A・60・00圓 B・56・00圓
京城本町 タネボウ 電本局3846

御存知ですか? 아십니까
マツダランプ三浦技師發明의 二重螺旋纖條를!



新마쓰다람푸가가는明度로電氣의消費量을 二割이나節約할수잇는것은이二重螺旋纖條를쓰고잇는理由입니다。이제는單一螺旋纖條의時代는아닙니다
公奉의後銃로으것이
「マツダ會員店」推奨
マツダ會員の店
마쓰다製品은마쓰다會員店에서사시기바랍니다
新マツダランプ
東京芝浦電氣株式會社 マツダ支社

滿足한回答밧도록 府尹、最後까지追窮

京電은辯明材料蒐集에奔走

만원전차의 완화책에대한 경전당국의 성의여부를 힐문코저 경성부윤이 부민을대표해서 오개항목을 열거하야가지고강경요구를 경전당국에 제출한이래 칠십오만경성부민의 관심은이문제하나에 총집중한느낌이잇서 그회피가 크게 주목되고잇거니와 방금부당국은 부당국대로 경전이부민의 총의인이 요구에대하여 완전히 응해오기전까지는 책임추궁의손을 노치안는다는 강경한결의미테 방금여기대한 작전계획으로 연일부윤실 중심으로 구수밀의중이고 한편 또 경전은 경전대로여기대한 답변에 여유를만들어두고서 방금변명재료의 수집기타로 활발히움직이고잇는중이다 과연 이들은 여기대해서 어떤비책을가지고잇는가 양편수뇌부의 배수장파결의는 어떠한가 경성부는 고교(高橋)부윤 경전은 무자(武者)전무―이두사람을 끌어내여 그들의 심경을 타진해보면 아래와갓다 (사진은 바른편…고교경성부윤 왼편…무자경전전무)

"充分한自信잇다! 府尹에監督權업다고疎忽히못하리라"

府尹과一問一答

―자신이잇는가?

府尹―자신이잇다

―어떤자신인가?

府尹―그건 지금언명할수가 업다 요컨대 부내의 교통난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만진다면 그만이아닌가 우리는 경전과 일부러말성을닐으키어다투자는것이아니다 이점은 경전으로서도 특히 양해해주어야 하겟다 경전과성의잇게 의론해보자는것이다

―가령?

府尹―경전은 말끗마다 요즘은 돈을주어도 차대를 살수가업스니 어쩌는수업다고 이러케 대답하지마는 왜일직암치 주문해두지안코 인제와서변명인가

―그러나 지나간날은 이제아무리 책한다해도 별수가업스니 방법과 성의여하로서는 이제부터라도 길은잇슬것이다 우리는 이길을 차자보자는것이다

―그길은?

府尹―그것은 미리 여기서말하라면 곤란하다 복안만은잇다 차대가 엇기어렵다면 뻬쓰로바꾸어도조켓고 까솔린이부족하다면 대용연료도 잇지안흔가 또 종업원의 대우개선도 넘겨버릴수업는 문제가될것이다 현재처럼 양성해노흐면 며칠부터잇지못하고 자꾸만 다른방면으로 전직해 버려서야 일이 잘되어갈리가잇는가 박봉에일만자꾸 하게된다면 자연 손님에대해서 친절히 대할수도업게되고……

―만약 경전이 이번요구에 응하지안는 경우에는?

府尹―도리가잇다 감독권이 업다고 소홀히 대접할수는 업슬것이다 부로부터 밧고잇는 특전도만코 좌우간 이런여러가지점을 생각한다면 경전도사리를 모를리업스니 성의로써 대해줄줄 밋는다 문제는성의에잇다

―좀더 범위를넓혀 관계방면을 총망라한 대책위원회가튼것을 조직할 의향은업는가?

府尹―그방법도 고려하고잇다

"總意彈"發射以後의作戰은?

滿員電車對策提示强硬要求와雙方의態勢

"車가업서걱정 誠意로써解決하련다"

京電專務와一問一答

―부윤이보낸 오개항목의 요구서류를바닷는가?

武者―바닷다

―기한내로 회답하겟는가?

武者―그때까지에 서류만 된다면 제출해도조타고 생각한다 제출해야할 의무가 잇서서가아니라 알고십다고하니 알려주는것이 오해를 덜게하는데도 움이되겟다해서 하는일이다

―현재의 증차계획은?

武者―금년조에 열대 칠월에열대 또요즘에열대 합계삼십대를주문중이다

―언제까지 들어올예정인가?

武者―그중열대는내년여름까지에 그리고 연말까에는 또열대가 들어올예정이니 내년봄으로이십대가 들어올줄안다 남은열대는 아무리부탁해도 소화십칠년에나 될랑말랑하다고하니 걱정이다

―현재 전차는 몃대나되는가?

―일백구십여대가잇다

―전부 움즉이는가?

武者―고장차가 잇기때문에 전부는 자연움즉일수 업게된다

―그러면 종업원은 넉넉한가?

武者―겨우양성해노흐면 다라나고해서 두통중이다 그러나급료도 올려주고 제복도 대우개선도 생각하고잇는중이다

―종업원은 넉넉한가?

武者―그러타

―이제몃대만 더잇스면 만원지옥을 해소할수잇다고 보는가?

武者―삼십대만 더잇서주면 될줄하다

―주문한것을내어노코 말인가?

武者―그러타

―그럼 결국오십대가 부족되는폭인가

武者―그러타 하지마는 우리로서는 돈이아끼워서 안사는것이아니다 차대가업서서 그러타 이점을양해해주어야 한다

―뻬스는 어떤가?

武者―뻬스는 삼십일대잇스면 못쓰게되니까 매년이십대식은 바꿔야된다 그래금년에한번기만 하더라도 팔십대를주문햇다 그중에는이번운행중인 ……이 포함되어잇다 …회사키고자 금대뻬스를 새로 사들여볼려고하는데 여러곳에서 잘허가가 나오지안는다 이것이라도 빨리허가가나왓스면 다소 완화되어갈줄안데 걱정이다 부당국의 태도를어떠케보는가?

武者―걱정해주니 고맙게생각한다 양편에서 성의로써 생각하면 조흔방도도 생겨날줄밋는다

結核菌掃射隊……(예방주간첫날의거리풍경)

배추한포기에 十錢以內바드라

西大門署業者에指示

김장철을당하여 각가정에서는 때를노치지안흐려고 서두르는동안 무배추갑이 터무니업시올랏다고 서대문경찰서 경제경찰계에서는 십사일아침 관내의업자삼십여명을 경찰서에불러다가 금후로는 배추는 백포기에십원이내 무는백단에칠원이내로 밧도록하라고 자숙가격을 내시하엿다 즉서대문경찰서에서는 그동안 무배추가격을조사한결과 금년은 무배추가 잘되지도안헛다하다고도 전하는한편 다른물들이 무리하게갑을올린것이 잇다는것이다 그동안의 가격을보면 배추한포기에 오륙전하던것이 십삼사전으로 갑자기뛰어오르고 또무도한단이 사오전하던것이 십이삼전으로 뛰어오른것은너무과하니 금후는 더밧지말라는것인데 이에위반하여 더밧는것이잇스면 폭리취체령으로취체하리라는것이다

令旨捧讀式

結核豫防週間第一日아침 總督府에서嚴肅擧行

황후폐하영지봉체결핵예방국민운동(皇后陛下令旨奉體結核豫防國民運動)은 마침내금십사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엇다 따라서 제일일인 십사일은 오전구시부터 총독부를비롯하여 전조선시삼三청에서 일제히 영지봉독식(令旨捧讀式)을 거행하엿다 이날총독부에서는 오전구시부터 남총독(南總督)、대야정무총감은감기로결근 이하전청원약이천팔백명이 정문현관압 광장에집합하여 신원문서과장(信原文書課長)의개식사、남총독의 영지봉독、남총독의훈화、대죽내무국장(大竹內務局長)의인도로 일동의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제창등의 순서로 동구시삼십분경에 식을마치엇다

이번결핵예방운동은 기보한바와가치 황후폐하께옵서 지난사월이십팔일에 나리옵신 거액의 어내탕금(御內帑金)에 의하여실시하는것인데 현하조선의 결핵병은날로 만연하여 소화십삼년중 총독부조사 통계에 나타난수짜만보더라도 연말현재환자수가오만칠천오백팔십명으로서 일개년동안의 사망자는 구천팔백구십육명이란 놀라운수짜이다 이것은 의료기관을 거친환자뿐이므로 이밧게도 당국에서모르는숨은 환자가상당히 다수로잇슬것은 의심할 여지가 업는것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아직 아무시설이 업슬뿐아니라 특히 근래현저한 사회현상인 도시의번창 교통기관의발달 산업의발흥 교육의보급기타 생활양식의복잡화등으로인하여 이결핵병독을전파할기회는 더욱 자꾸지게되므로 무서운이병을 만연케할원인은 점점더증가되는 실정이다

서울에初雪

작년보다느젓다

벌써 눈이온다―십사일오후두시삼분 경성에는 찌푸렷던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햇는데 관측소경성측후소의 말을들으면 금년첫눈은 작년보다닷새늣고 평년보다 사흘이 빠르나 눈은 만히오지는 안흘모양이라고한다

豆滿江結氷

【羅津電話同盟】함경북도국경부근은 십삼일경부터 기온이 갑자기내려서 경흥(慶興)부근의두만강은 강시가부러십미터내지이십미돌가량이 결빙되어 나루배는건느지못하게되엇다

이건무슨일인가? 느느니女給·妓生

利權化한許可證의賣買盛行

은진산업(殷賑産業)경기의 여파로 요즘 붐는등 푸는등의밤거리는 홍청홍청하여감에 따라 『빠-』와『카페-』의 여급수효가 굉장이 늘어가고잇는데 여급들은 소관경찰서의 허가증을바다야 『홀』에 나갈수잇슴을기화로 요즘미처 허가증을밧지못한 여급과 또는 경찰서에서여급허가증을 줄수업다고 거부당한 여자에게 다른 여급의허가증을 상당히 비싼값으로 매매하는 사실이 수차 발각되고잇서 종로경찰서에서는 이에대한 검증을엄중취체하기로되엇다 가튼 허가증매매가 성행하는이유는 요즘 유흥시간제한에도불구하고 여급영업이상당한 수입이잇는것을 말하는것으로서 기생의 격증과함께 비상시국하의기현상의하나이다

住民의犧牲도善處를"!

國策은順應하나土地갑시너무싸면억울하다고

富平工業地域內住民들이上道陳情

경인일체의 실현을목표로 머지안햇스나 이를실시함에 당하여서는 여러가지 중대문제가노혀잇는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제일먼저 해결치안허서는 안될문제는 공업지대로 지정된지역의 대부분은 농경지(農耕地)로서이곳에 공장을들여 안치기우하여는 먼저 지금여기서 농사를짓고잇는 주민들의 갈곳을 주어야할것이오 둘째 지수로보면선조대부터 물려받는농토라 하더라도 국책에순응하는 의미에서 떠나갈것을 각오하고 잇는터이나 사변이발생된후부터는 경성과 인천의부역 확장으로 말미암아 땅갑시 현저히 폭등되고잇슴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계획구역으로서 결정된 그때의시까를표준으로 매수한다고 당국에서는 발표하고잇다 이에농업용소성 지구와 주택지정 역지구로 지정되어잇는 부평군부내면(富平郡富內面)주민들은 전전긍긍하여 십사일오전 부내면협의원 …씨외 네명이경기도 내무부장을차자 국책에 희생이되는 불행한주민들을 위하여 신중한고려를 해달라고 진정하엿다

妥當한地價考慮

評價委員會에서査定中…神谷京畿內務部長談

진정원들의 말을들어보면 작십삼일에도 토지사정평가위원회(土地査定評價委員會)를 열엇섯지만 그곳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까대로 전부가지불할수는 업스나 타당한지까를 고려하여다사도록 할터이다

陳情者代表談

내무부장을 만나서 도당국의 의향을 타진한 진정원대표의말은이러하다 내무부장을 만나보앗스나 이러타할 아무대답도 듯지못하엿다 우리는 국책에순응하는 의미에잇서서 시까라도 바다가지고 다른곳으로 옴겨갈것이오 도당국에서는 어디까지나 시까를 내리지안흘것이라고하지만 명년 예산년에 나타난것을보면 당국에서 선언한것과는 현격한차가 잇는것을발견하엿다 물론대공업이 발전되는것도 조흐나 그들은 모두가 은진산업들인데 구태여 빈약한 농민들에게까지 손을 보여주면서 헐한갑세 사들일필요가 어디잇겟슴니까

東亞通信協議會

廿日부터東京에서

내지、조선、만주、지나 한통의 연락아래일원화를도모할 필요가되어 신동아건설에 매진하는데잇서 오는이십일부터 사흘동안 동경에서 동아통신협의회(東亞通信協議會)를 열기로되엇다 체신국에서는 복전감리과장(福田監理課長)과 좌좌목공무과장(佐佐木工務課長)이 출석할터이다 이협의회는 만주국과 신국제전기통신회사를 새로만들어 간선통신망의건설과보수는 동회사에 일임하고 운영만을 내지에서는체신성 조선에서는 체신국 만주국은 만주전신전화회사 북지는 화북전신전화회사、각 특수회사가하기로 되엇는데 기술과 운영을통하여 더욱긴밀한 연락을 도모하려는것이다

同宿人이窃盜

십사일오전두시반경 동방(東邦)여관 부내관수동 판에 유하는 부평군부내면하리 이성남(李成男)씨가 차자와던 손님을전송하고 방에들어오며그 사이에 책상설합에 너헛던 돈삼백원이 간곳업스므로 곳종로경찰서에 신고하여조사한결과 엽방에 유숙중인 … 홍(洪)…(二一)가 훔처가지고 라디오、…을 사가지고 … 발선하엿스므로 …부를받어갓다

旱害救濟義捐

大阪日新校生拾九圓을義捐

외지에나가 학업을닥는 학생들이 넉넉지못한 하해지의연금을보내주어 기특하다 일반의칭찬을받고잇다 그들은 지금대판(大阪)부내 일신상업학교(日新商業學校)야간부에 재학중인학생들로 금번의 한해지 정황에는 동정의 눈물금할수업서서 십구원팔십전을 거두어 소위체로집

사일 본사에기탁하여왓다

朴東淑 金仁洙 吳尙烈 俞在龍 金德根 李東根 成澤 金龍根 梁杜春 梁甲春 陳鍾鎬 金鍾玉 李東模 丁燦均 朴俊東 金英祚 申鳳洙 徐鍾廣 李方宅 黃容浩 金相烈 田炳列 李龍浩 李鍾植 朴鍾得 李泰根 吳鍾熙 金鍾治

聖書公會職員義捐

조선성서공회직원 일동은 재

社會課取扱分

지구제의연금으로 현사회과를 거쳐 사사회과에 기탁하여온다

▲金三圓二十錢 ……▲金二圓 ……▲三圓 ……▲九十錢 ……▲一圓五十錢 ……▲一圓 ……▲三十六圓七十四錢 ……▲五十錢 ……▲百四十七圓二十九錢 ……▲五十一圓八錢 ……▲八圓四十錢 ……▲七圓十二錢 ……▲六圓 ……▲計五百四十七圓三十四錢 ……▲合計六萬五千四百五十六圓十一錢

스키-朝鮮宣傳

조선안각지의 스키-장 사진파 두어 시사일부터 기탁하여 스키-와 스케이트 원에서 벌써 종목에 손 수요도시에 스키-와 스케이트 체육회와 함께 열리고 산하에 출보내어 의 전연회를 열기로되엇스므로 리는 조선체의스키-사진파를 조선철도국에서는 삼방(三防)금강산등의 스키-장을 비롯하여 등사진을 수십점을보내어 거를 의 조선관광을선전하기로되엇다

오지안는다 이것이라도 빨리 허가가나왓스면 다소 완화되어 엇수한데 걱정이다 부당국의 태도를어떠케보는가? 만주어디안내소에서는 신이월초

米國拳鬪代表軍

豫定보다빠르게今日入京

釜山埠頭에서포-탈監督談

【釜山支社電話】본사와전조선권투연맹공동주최의 일미대항권투전에출장하는 미국대표 산노제대학군일행은 『더윈-포-탈』감독인솔하에 예정보다빠르게 금십사일아침 관부연락선으로 원기왕성하게 부산에도착하여 오전일곱시오십분 부산발『노조미』로 경성으로향하엿는데 오후시오십칠분 경성역에도착하여 조선호텔에 투숙하기로되엿다 미국군의감독 포-탈씨는 기자에게 다음과가튼 소감을말하다

그림틴조선에 제일보를 드딘 우리는 듯던바와가튼 산수명미한곳이라고 느꼇슴니다 이번원정에서 우리에게는 가장힘들것으로 다하여야할것임니다

기상파홍군에 싸어잇슴니다 동경파대판에서는 여러가지컨디숀관계로 가진바책을 다하지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동양의패권을차지하고잇는 조선파의대한이야말로 우리가기대하던일전이니 『베스트』를 다하겟슴니다

훔친物件팔아鐵工所開業

綻露되어本町署에

홍진금네 팔아서 전항소를 내고잇던 전과자가 십사일본정서에 부잡혓다 이남새벽 본정서복진(福田)유(劉)양형사는 부내신수정(新水町)삼백사십구번지에서 철공소를 경영하는 최기호(崔…)는 인만치 선수제군은 벌써부터 基準의 부잡아다가 취조중인데 그는약삼개월전 제국『미싱』천안(天安)분점에서 재봉틀 두대를 훔친것을비롯하여 그간 평택(平澤) 오산(烏山) 서정(西井) 수원(水原) 소사(素砂)등지에서 재봉틀 열다섯대를비롯하여 자전거 양복귀금속등 약오천원어치를 훔치어 전기와가치 신수정에서 철공장을내다가 본정서에 체포된것이다

소나말이나개나 도야지나 즘생이 미물이고 몰나워업는것이라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그것도 커서보다 새끼때는귀엽다 ▲그중에서도 도야지가치 더럽고미물가튼것이 업스나 하지만 그것도 갓나엇슬때란 혈어바치지르른한것이 여간귀여워보이는것이 아니다 ▲호랑이가 포악하고 무섭다고 하지만 아수어렷슬때는 제법영지범가치 얌얌도 떨치고 몰고뜻고 그것조차오히려 재롱스럽다▲범도금방 무서운얼굴 서지르면이라고해도 양지쪽에 해바래기나하고 가만히 누어잇는것이란 또어른밉은것이 볼만하다 산범이아니라면 그림으로나 각으로될때 더맛이난다▲만일바위틈이라하자 저절로생긴 그릇이범이라던가 소라던가 토끼라던가 어떠형용을한 커다란것이언제든지 참말바위가치 천연스럽게、조금도 동함이어서 그지태를가지고 잇는것을보면▲단순한바위일줄은 알면서도어떤의엄을느낄수도잇고 기개도느낄수잇고 흑은 정다움을 느낄수도잇다▲이러케보면 사람은더욱당더갓기도하다

오늘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吹奏樂▲六時二〇分 …講演▲七時三〇分 …▲八時 바이올린獨奏▲八時二〇分 …▲八時五五分 明治…라디오文庫

廣告

戀愛와結婚

戀愛와結婚은人生의一大問題이다。本書는六判レザ装金文字入箱入五百餘頁의大冊으로有名한學大家故羽太先生의遺著로서發賣以來百數十版을重刷되는것을보드래도如何히本書가一般의讚의書인가를算知할수가잇다。右의『戀愛와結婚의書』와羽太博士의『戀愛의心理』의二冊組를一齊에東京中野區小瀧町四二、東京出版社에서二冊으로 特價一圓八十錢으로 特賣中이므로 前記東京出版社에『戀愛と結婚』二冊組送하라』고 讀者는申込하면곳資本提供할 …

戀愛の心路는險しい、敎育と戀愛、戀愛の過程、主婦と近代女性の諸ロマンチックな戀愛、貞操と戀愛、…

きれいる

ワカ山の『るいれき專門藥』

評判이노픈〃內服藥〃

淋巴腺ニ結核ぐでんのクキクヨ 注射代用

るいれき專門藥院 健康の更生

副作用업고、氣分조케잘나아서기때한다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野田新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支店 出張所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九月より債券相場値上り 果然割引債券暴騰す 新貯蓄債券賣出し 只今豫約受付中 一枚十圓と五圓 御早く

內科 小兒科 醫學博士 姜聲郁

京城仁寺町一七九 姜內科醫院 電光四二一六五番

桃屋의桃 品質第一等

날것보다맛잇는 白桃、黃桃 各데파一트와食料品店에잇습니다 東京 桃屋製

十五夜打鈴 新民謠

李花子 OKEH 오케

가을의遊記 金貞九

結核 虛弱體質 劃期的治療劑

ハツモン コメツト

結核性諸疾患·病後衰弱 虛弱体質·腺病質兒童 에對한가장合理的이며治療와榮養을兼한本邦嚆矢의健康注射劑!

大學·陸海軍·滿鐵其他各官公私病院의採用品

適應症 肺結核、肺浸潤、肺尖加答兒、肋膜炎、腹膜炎、腸結核、膀胱結核、淋巴腺結核、腺病質、小兒腺病質、一般虛弱體質、榮養及食慾增進等에卓效가有함

本劑는特殊한肝母及脫脂肝의非病原菌에서어든注射藥으로서本劑中에는活性酵素、高單位의비타민B、비타민ADE、아미노酸、칼루슘、마구네슘、燐及有機性鐵等을含有함

株式會社 黑田藥品商會 大阪市東區今橋二丁目 支店 東京市本町三丁目

一圓二十錢의 콜럼비아普及盤

Columbia

母性悲劇 어머니의힘

劇團豪華船總動員

演出 李瑞

配役 李伯修 徐一星 閔玉葉 池京順 그아들(容珪) 張陣 玉葉母 金小鳥 乳母 朴永信 金監役 梁白明 李英求 羅美花

音樂效果 피아노 金駿泳 바이오린 金生麗

美麗흥터·八二枚 定價金二圓四十錢

中風、半身不遂、動脈硬化에는 心臟病、內腫、痰腫에는

原因療法을하여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原因療法으로第一血液을淸血시키고여러가지毒(梅毒、淋毒、酒毒、煙毒、藥毒、體毒)을排泄시키며五臟六腑를補하는데비로소眞正한治療와健康을獲得할수잇슴니다在來治療法의缺陷은單只其局部에만作用한藥을使用하여왓스므로어떤듯하다가도재발하는것이엿슴니다只今世上사람이效力을보아毎日가치感謝狀을밧는淸血排毒强壯劑『海草精』은病의根源을뿌리빼버리는힘이强大하여누구나服用하는날로氣分을알수잇스며效力에驚嘆하게됩니다海草精으로速히快癒하는天下의痼疾을곳치소서一個月分四圓九十錢二個月分九圓三十錢送料三十六錢 先金注文에는送料弊所負擔하여精密히製藥하여速送합니다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番地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로注文하시는분에 仔細한病理와治療方法의冊子를無料添送 振替京城二三〇九八番電光四〇六九番

概說 新文學史 (六)

林和

第二章

第二節 精神的準備

雜誌(續)

이러케 雜誌는 啟蒙雜誌를 前面에 내세우기에 汲汲하엿스나 大勢는 漸次로 기우러저 實際로는 啟蒙의 方向으로 轉化되어가지 아니할수업섯다.

그대신 政治가 解決하지못한것을 文化와 教育에다 委託하라 하는 氣運이 隆熙年間의 一般傾向이엇다.

여기서 새로 어려난 傾向이 青年特히 少年들에 對한 稀望스러운 期待엿다.

雜誌『少年韓半島』는 이러한 氣分을 反映한것으로 創刊號를보면 다음과갓다.

『少年韓半島』 少年韓半島여 少年韓半島여 今 一千萬同胞之前途와 四千年[illegible]之運命을 執行者ㅣ誰오 ○○者乎 ○○者乎 此何時也ㅣ며 此何故也오 [illegible] 我歷史上 [illegible] 乃二十世紀中 少年韓半島誕生之辰也ㅣ로다 今 千萬同胞曰 我韓半島之少年이여 [illegible] 爲我韓半島[illegible] ○○者之心之力[illegible]之血之[illegible] 不過十之一이나 彼[illegible] 可敵[illegible] 其所向之[illegible] [illegible] 以[illegible]而[illegible]之[illegible] 何物[illegible] 乃少年韓半島也ㅣ라 [illegible] 少年韓半島[illegible] 乃東洋[illegible]

言論自由[illegible] 少年韓半島也어 [illegible] ○○之[illegible] 何[illegible] 誠[illegible] 人[illegible] 無[illegible] 無所[illegible] [illegible] 少年韓半島 [illegible] 韓半島之少年[illegible]

太平洋[illegible]之少年韓半島也어 [illegible] 韓半島[illegible] 二千萬民族[illegible] 我韓半島少年韓半島之白山[illegible]

이러한 啟蒙的內容은、創刊號에依하면 趣旨、作用、自修論、教育論、數學、國文演說、社會學、法、史說、經濟學、農業의大意、아모君면、衛生問答、地理問答、心理問答、物理學、動物問答、植物問答、鑛物問答、歷史、地文、交際新禮、小說、內報、外報、等으로 實際的啟蒙이 눈에 띄엇다. 執筆者는 [illegible] 關係者를보면 文泳觀 鄭[illegible] 朴晶來 李人稙 李海朝 李[illegible] 徐相浩 金獲祚 柳鴻夏 徐[illegible] 李範益 崔[illegible] 柳濟[illegible]等諸氏다.

朝鮮姓氏의起源및發達 (中)

一黃義敦一

三國의 發達된順序로 말하면、支那와國境이 맛다하서、文化의 輸入이 便宜하며 物力이 가장豐富하고 歷史가오래된高句麗보다 빗이밝어지기비롯하여 그의餘光이 南下하면서 百濟를것처서 最後에新羅에 이르는것이普通의公例이엇다. 그러므로 大家族主義의發達이라든지、支那式姓의 輸入이되엇슴도、다이公例에 依하여 高句麗、百濟、新羅의順序로 되엇슬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이順序에따라 叙述하여보고자하는바이다.

三國史記溫達傳에『欲下嫁於上部高氏』라함을보면 或 高句麗中葉以後에 貴族階級에서 若干의 姓氏를 使用하얏던듯하다. 만은同傳의主人公인 溫達의姓이、업섯슴을보면、同時에도 少數의貴族以外에 普通平民으로서는 支那式姓이 업섯던것이다. 溫達과同一한 平原王時에되엇다 推定하는平壤城石刻에『小兄文達』 小兄裨須百頭 相夫若侔利等이 쓰워잇는것을보면小兄은 官名이오 文達、裨須百頭、相夫若侔利等은 다人名으로서 小兄의官位에잇스면서도、아직支那式姓을 쓰지안하엿던것을 알만하다 그리고 百濟의文獻을 調査하여보면 平濟塔碑에『大佐平、沙比千、福國福成』이라하얏고 劉仁願紀功碑엔『僞扞率、鬼室福信』이라씨워잇다. 大佐平은 百濟大臣의 官名인 六佐平中 首位에잇는 官名이오 沙比千은新羅의角干과가튼 位爵이며、『僞』는僞爵의국辭요 扞率도 또한 位爵로서『福國福成』『鬼室福信』은 다人名이다. 그리고 三國史記에도 黑齒常之、燕眞、階伯等 多數의人名이 나타낫스나 만은그가다支那式의姓이 아니엇슴을보면 百濟에서는 王族에서 扶餘氏를使用한以外엔 最後 亡國의때까지 一般으로 姓을通用치 안하엿던것이다. 그리고新羅에서는 眞興王의國境巡狩碑中 昌寧碑엔(距今一三七九年)『一吉干沙喙忽利智 沙尺干漢城軍主喙竹夫智 沙尺干碑利城主喙福登智 上州行使大等沙喙宿欣智 村主卒聰智述干』等四十餘人의 侍從臣을 列記하엿스며 黃草嶺碑에도 北漢山碑에도 다 그와 類似한 人名이 列記하여잇다. 이의 大意를 簡單히解釋하면 一吉干、沙尺干、大等、述干은 다新羅官職의位階요 沙喙와沙梁 곳새볼이오 喙은及梁곳 일볼로서 그의原籍地或은出生地요 漢城軍主는 漢城에駐在하여잇는軍司令官、碑利城主는 碑利城을지키는郡守、上州行使는 上州의行政、或은司法官이며 村主는 地方을統治하는 村主는 지금面長과 가치 一村을代表하여 行政을補助하는職名이오 智(習)『知』는 敬稱詞로서 지금에 한아버지、아버지라 敬稱하는 지와가치 쓰든말인듯하다. 그리고 忽利、竹夫、福登、宿欣、卒聰은다人名으로쓰엿다. 그리고 이로부터 卅年後인 眞平王十三年에 刻立한慶州南山城碑엔『阿良邏頭沙喙音乃古大舍 奴含道使沙喙合親大舍 郡上村主阿良村今知撰干』等十餘人이列記되어잇다. 이를 簡[illegible]히 解釋하여보면 阿良邏頭는 阿良村에 巡邏軍의首領으로서 沙喙에 原籍을두고、音乃古라이를 하는 大舍(尊稱)님、奴含道에使로잇는同時에 沙喙에原籍을두고 合親이라하는大舍님、郡上村의主任으로서 阿良村에原籍을두고今知라고를하며、撰干(述干과同一)의 位階를가진 사람들이다.

上記와가치 中央政府로부터 地方官吏에 이르기까지 當代를 代表할만한 地位에잇는人物로서 千秋에썩지아니케傳하라하는 金石文에 새인이름이 오직 忽利、竹夫、福登、宿欣、卒聰、音乃古、合親、今知等의 簡單한名字뿐이오、三國史記新羅本紀初頭에 쓰워잇는바와가치 朴、昔、金等王族的姓이며 六部賜姓이라하는 李、鄭、崔、孫、裵、薛等의姓이 하나도 나타나지안하엿슴을보면 그가다後人의追記한 假設的記錄이오 眞興王眞平王時代로부터 一千三百五十年前까지는 新羅에는 姓을使用치안하엿던것이明瞭하엿다.

四

그러면三國의末期、곳新羅의統一을前後하야、唐나라와 軍事、外交、遊學等、여러方面으로 接觸이 자저지면서부터 支那姓을模倣하야 쓰게되엇던것이다. 다시말하면 前節에쓴과가치 支那에서는 二千年前에 벌서 姓이完定되엇섯슴으로 다른나라사람의姓이업슴을 異常이여기는同時에 그를비웃고 侮視하엿슬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或은外交使節로 或은遊留學生으로 唐나라에가서 그네를나날이 接觸하게되엇던 半島사람의心理上苦悶이 적지안하엿던것이다. 그래서 그네는 곳支那사람의姓을模倣하여 各自의姓을지어쓰는 同時에 自己나라흔은 家門의歷史를 粉飾하야 지은수가만하다. 例를들어보면、高句麗의『莫離支』케하고 唐에歸化하엿던 泉男生의墓誌文에『姓泉氏』라하얏다. 만은 그는그의父泉蓋蘇文이라는 泉字를떼여다姓으로썻슬것이다. 그러나泉蓋蘇文의 本姓은 泉이 아니엇슬것이다. 本來는 淵蓋蘇文이엇섯스나 唐高祖 李淵의이름과 가틈으로 唐人 또는 唐에歸化한男生이 그를避諱하기爲하여 淵蓋蘇文으로 곳처쓰게되엇던것이다. 그리고 蓋蘇文의 一名은蓋金으로서、日本書記에『イリカスミ』라 發音을부처잇다. 三國史記地理志에『仍利阿縣云海濱。水川縣(一云水入伊)』라하엿슴을 보면『海』와『川』을『仍利』『入伊』라 漢字로써스나、그의發音이 곳『이리』로서『淵』과『泉』을『イリ』라함과 마가지로『泉』에對한 名稱인同時에 本傳에『自云生水中以惑衆』이라하얏슴과가치 符合하여『イリ』가곳『淵』『泉』의 本義인듯하다. 그리고『蓋』는『갓』이오、蓋蘇文의 意味인同時에『カ』이오、共通한 同時에『소문』『スミ』『쇠』의 變音으로 볼수잇슬것이다.

以上을 綜合하면『淵蓋蘇文』、『泉蓋蘇文』、『泉蓋金』은 곳『イリカズミ』『이리갓쇠』라 發音을 읽을만한同時에『갓쇠』라 할만할것갓다. 그러면 本來는 그의姓이 아니엇슬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의아들 男生이 唐式을 본바더서 姓을 지을적에『이리갓쇠』의 漢譯인 泉을떼여다가 自己의姓을 지은것인듯하다.

同福行 ②

瓮城塔洞

方鍾鉉

갈곳은 만코 路程은 急하다. 오늘은 아무케도 赤壁을 떠나서 同福邑이까지 到達하여야된다. 일찍기 早飯을 재촉하여 마치고 十里길이 조금 가깝다는 勿染亭에 올라서 四方을 두루살피니 아므로 滿流가 亂치아흐水聲을 남기며 細流하고 그건너는 一帶綠金을 일운 屛岩이 頭頭에、고개노피 늘어섯다. 亭子의右쪽은 直下數十丈의 石壁이 急하게 깍가잇고 石壁上엔 그즈한 松木을 두고 前시안흔 山脈이 휘이 둘러 亭子를 싸고돈앗다. 亭下에 數十丈의 絶壁이 물우에 기픈듯이 박혀잇는데 壁上의 一老松은 그리웁지안흔 板石을 그미레 바치고 沼를 向하여 가지버더 더벗다. 이勿染亭은 福川의 名勝니 그勿染한 맛이며 滴酌한 景槪가 可히 湖南에 甲이라하겟다고 勿染亭記의 첫머리에 和稱되어잇다. 이勿染亭은 赤壁과 아울러 果然同福의絶景이니 오래머므를時間을 못가진것이 큰遺憾이다 다시赤壁으로 도라와서 望美亭의 後方에잇는 小丘에浮屠寺址가 잇는것을 차저다猛 塼造한 塔片을 一一히調査하고 午後二時에 赤壁을 떠나기로되엇다 赤壁山 最高峰에 人夫를督勵하여 넘어서니 길은左로도 부러지고 右로도 올라가게되엿다 地圖를펴들고 指南針을 꺼내보니 갈方向은 左로잇다 길이길이아니고 나무숙풀방호로 허방지방 甕城山만 바라고간다

甕城이라고한은 滿亂時에 傳하는바 一面은 石壁이오 他面은 石城을둘렀다 城안에들어서서 一周하고 너레바위우에 잠간쉬니 前峰은오직 石塊로되어 甕形을 일우고 城下로 내려다보이는데 相對된二峰은 마치、뚜겅안씨운 石門가치보인다 月峰村을 지나서 塔洞에들려 浮屠塔을 求景하고 뒷山에 우둑웃둑소슨 오만바위며 그아메가 새바위를 드려다보며 同福邑으로 向하다. 福川旅館에 집을푸니 午後 九時五十分이다 발도늣고 길도 初行이므로 밤에 藥軒할 便談이며 民謠를 今夜만으뭇하게되엇다.

同福은 舊縣이니 本來는百濟 豆夫只縣이던것을 新羅에 이르러 改名하고 谷城郡의 領縣으로 삼엇다. 高麗朝에 至하여 寶城郡에 屬하엿이엇고 李朝太祖二年에는 和順縣과 聯合하엿스며 太宗五年에는 和順과合하여 福順이라고 改稱되엇던것이다. 그리하여 顯宗五年에 復縣하여 順天府의 領縣이 되고 光武七年에 郡으로 陞格하엿다가 大正三年에 다시 和順에 合하여 오늘에 至하엿다 同福은 여러名稱으로 불리워왓스니 豆夫只、甕城、福城、福川 同福等이 그것이다 내가 들어잇는 福川旅館도 그이름이 이稱名에 依據함이리라. 大正三年三月에 府郡의 廢合을 行할때에、綾州와 和順과 同福의 三郡을 한데 合하여 綾州와 同福이란 名稱은 面의이름에 使用하게되고 和順을 삼아서 合併郡의 名稱을 삼엇스니 이것이 今日에 至한것이다 이제 同福舊縣의 位置를 搭하면 아래와갓다

世界의귀

『노ー벨物理、化學』受賞者決定

瑞典科學翰林院은 一九三九年度『노ー벨』物理學賞과 化學賞의 受賞者를 銓衡한結果 物理學賞은『카리포니아』大學物理學教授『아ー네스트·오ー랜드·로ー렌스』博士의『사이크로트론』(磁氣共鳴加速機)發明에 化學賞은 伯林大學과 및『카이절빌헬름』研究所『부테난트』教授의『性"호르몬"의研究』와『쮸리히』工業大學『루지카』教授의『"테르펜"複合體의研究』에 各各授與하기로 決定 지난九日에 發表하엿다.

그러나『노ー벨』化學賞이 授與된 獨逸『부테난트』教授는『나치스』의 禁止에依하여『노ー벨』賞을 拒絶하엿다한다.

孫子講義 (二十)

李昇圭

戰勝而天下曰善이면 非善之善者也니라

(註) 善之善은最善한것을말함이라 힘써싸우고 男맹잇게처서 이기면 天下가다알고 잘싸운다하리니 이는 勇猛하다는일홈잇스나 싸우지안코 이기는것만가티못하므로 最善한方法이아니니라

(通解) 싸워이기매 天下ㅣ갈오대 善타하면 善의善한者가아니니라

故로擧秋毫에不爲多力이오見日月에不爲明目이오聞雷霆에不爲聰耳니라

(註) 秋毫는兎의毛가 秋에至하면 더욱빠족하고 가는것이니 至極히가벼운것을말함이라 이는보기쉽고 알기쉬운것을比喩함이니 싸홈을싸워이겨서 天下가다알면 善戰한것이아니라 天下가다알지못하는가운대에 敵을이기는것이 가장조흔것이란말이라

(通解) 故로秋毫를드는것이힘이만함이되지안코 日月을보는것이 눈밝은것이되지안코 雷霆을듯는것이 귀밝은것이되지안나니라

古之所謂善戰者는勝於易勝者也니라

(註) 싸움은이기려고 目的하는것이니 敵人이我를攻擊하기처음으로 작은거던 我는가만이智謀를 運用하여 먼저制御하면 힘쓰는것은 이미적고 敵을制御하는것이쉬운故로 賜者한功은보이지아니하나 所利를거두는것은만흐니라

(通解) 예전에 일은바싸움을잘한다는者는 이기기쉬운者를 이기느니라

故로善戰者之勝也는無智名하며無勇功이니라

(註) 權謀를日大智는나타나지아니하고 大勇은들어나지아니하나니 未形의前에敵을이기면天下가그의智勇을알지못하느니라

(通解) 故로싸움잘하는者의 이기는것은 智謀잇다는일홈도업고 勇猛잇다는功도업느니라

故로 其戰勝이 不忒이니라

(註) 忒은 差誤니 即어겨진다함이라 謀를一日未形에보고 未成에쏘피므로 百戰에百勝하여 조금도 差誤가 업나니라

(通解) 故로그싸워이기는것이 差誤가 업나니라

不忒者는其所措ㅣ必勝이니勝已敗者也니라

(註) 措는施니 我의計를반드시이길곳에 둔다함이라 已敗者는敵이이미敗할形勢가잇는것이다

(通解) 어겨지지 안는다는것은 그두는바ㅣ반드시이기는것이니 이미敗한者를 이기는것이니라

新刊紹介

◇經濟マガジン 十一月號(內容) 價格停止は我我にどう響くか、物價政策の强化 世界の新情勢 歐洲大戰の新性格 新中央政權の一性格 南進政策と臺灣經濟等 其他 發行所東京市麴町區丸ノ内三丁目 ダイヤモンド社 振替東京一五九六番 定價六十錢

글을살리는 書簡쓰는法

學校를 卒業하고도 滿足한 便紙도쓰지 못한다고하면 곳잘 듯는소문이다 簡단 서투른便紙가치 날부끄러운것은업다 自己가生覺하고잇는것도 相對便에게 充分히表現지못하고 드디어는誤解를 사게되는 일이잇다 그러나 書簡文만잘쓰면 相對便의 感情을害하던지 失禮지도안흔 참괴를하는일이잇다 今般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東京書院에서 發行한 文學士蔣谷先生著『實用新案手紙百科辭典』이란冊은 이런 缺陷을補充하며 누구에게나 곳 所用되어 생각한대로 술술쓰게되는 非常히便利한 冊으로 이冊만잇스면 날부끄러지안코 書簡文章가되어 他人에게便紙를代書까지도써주게된다 內容은『交際文』『商業文』『家中』『寒中』『見舞文』『作文』『祝賀』『照會』『催促』『依賴文』『男女交際』『就職の手紙』『履歷書の書方』其他 八十項에 目하며 알기쉽게 一冊으로 되어잇다 同書는定價一圓七十錢인데 五百部限하여 겨우一圓으로 特賣하고잇다 東京書院에 葉書로申込하면 代金着本拂로 急送해준다

바른 簿記하는法

簿記하는法은 그러케 어려운것은아니다. 假令小學卒業한學力으로도 獨學으로 完全이 簿記하는法을알수잇다. 이번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東京書院에서 發行된『すぐ活用出來る正しい商業簿記講義』라는書籍은 그名稱과가치 바르게簿記를 배우는데는 最適의것으로 同書에는簿記人의 心得으로부터 現金出納의記入法 商品仕入、賣上元帳、仕分帳、日記帳等의하는法과決算法、棚卸シ、資產表의作法等 各各類例를示하야 詳細하게一一히 손을잡고가리키듯써노앗다. 그리고 同書는 定價一圓五十錢인것을 特히 今回에限하야 特價一圓으로 頒布하는데希望者는葉書로 注文하면 곳送本하며代金은 後拂이라도조타하니 퍽便利하다。

珠算이서틀려서 他人압헤羞恥를當해

某大實業家의 述懷에『입거업고쓰기를잘해도 珠算이서틀려서 採用하지안는일이종종잇다』라고 事實珠算이 서투른것은 活社會의 分岐點이므로 一生의損失이 아니라 他人에게생각지안흔 참괴를 당하는일이잇다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東京書院에서 發賣된『速成熟達正しい珠算の覺え方』를보면 어떤素人이라도 곳할수잇게 珠算의初步부터加減乘除諸等數·求積·步合算等詳細한方法을記하여잇스므로 本書에依하야 數時間規則잇는練習을하면 안저서 甲種商業學校卒業程度의珠算이면 아무리어려운計算이라도 至極히簡單하게 가장빠르고도正確히計上된다고하야 商店會社銀行員으로부터 大歡迎을밧고잇다 同書는定價一圓八十錢인것을 特價一圓으로 前記東京書院에서 一般에게 頒布하고잇스니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着本拂로 送本한다。

바른 言語使用法

막상『바른말』을써야할 境遇에直面하면 누구던지 곽맥혀버린다 友人의子息이 結婚을햇다 披露宴에 參與해달라고 招待를 밧는다 그러라고 應하야 堂堂한 禮服을채려입고 出席、자ー인제新郎新婦나 雙方의兩親이나 親戚된사람에게 如何히 人事를 해야조흔가 모른다 그저누구보고나『慶事스럽소』라고만되푸리한다면 自己의無能을廣告함과 가튼것으로 남에게弄거리가된다 新築祝賀나出産祝賀 入學入營入團、火災나病慰問、四季人事凡節누구나 의레히 이러듯이어야할것이나 졸재로어려운것이다. 葬式이나 通夜하는人事에이르러서는 大槪가이속으로 우물우물해버리고꾸벅꾸벅 人事를하고믈러스는모양이란 참으로보기에숭하며 男子의羞恥이다. 그러타고 아무리生覺하여도 이것만은讀法으로서 一定한型이잇는것이므로 알수업다. 이런것을 即席에서解決하려면이번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東京書院에서 發行한『바른말의使用法』이란冊을 읽으시요 如何한 境遇에도 똑똑한人事를할수잇서서 果然分明한사람은다르다하고 적은일로도 사람들에게感心을밧게된다.『正しい言葉の使ひ方』定價一圓五十錢인데 五百部限하야 겨우一圓으로 特賣하고잇다 東京書院에葉書로 申込하면 代金着本拂로 送本한다

雄辯의힘

公開된演說의秘訣

辯論의時代와다 公務者의意見을發表하여 大衆의支持를밧고 實業家가 組合이나會社를爲하야 테ー블스피ー취를하는것이나 諸君이 卒業式入退營의 人事도 다雄辯이必要하게되엇다 그러데 自己의意見을發表하지못하고 해야만할式辭、人事도 변변히 못하는사람은 이生存競爭이 激甚한世上에서 웃사람이되는것은커녕 自己保存도 할수업다 雄辯家가되는것은 어려운가하면 如何不然 이번 東京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一東京書院에서『式辭演說』이라는 新書入二百十頁의指導書가 나왓는데 이冊으로 工夫하면 어떤서투른사람이라도 단밧에 雄辯家가된다. 어떤場所나 機會에도 조소이게되는 有名한式辭 人事 祝辭 弔祭의草稿가실려잇스므로 이것一冊만잇스면 決코어렵거리지안코 언제나 拍手喝采는 保障하며、先着五百名限特價一圓으로 目下發賣中이니 希望者는 早速注文하라 同社에서는代金은 着本拂로發付하여준다

日本人の好み　イカリソース　이가리소-스　五分の手軽さ　普通の[illegible]

食後의신트림과胃痛에

胃酸過多症 은 過飲過食을하거나 恒常肉類와기름끼인것을먹는분、또는 身心過勞、運動不足한분에게 걸니기쉬운病인데 飲食物을먹은後에속이쓰리고신트림이나며 쓴물이올나오고 時間을좀지낸後에는胃痛이甚한等々의症勢가 나타납니다。이病은

適當한治療 를 하지않고 그대로버려두면 過剩分泌된胃中의酸이胃壁을侵蝕하야 不治難症이요生命을빼앗는다는무서운胃潰瘍에걸니게됩니다。그런데 在來의胃腸藥은 大概重曹를主劑로한一時的鎭痛劑에不過함으로 治療의時期를노처痼疾化시키니

病源에作用 하는『노르모산』이널니賞用되고있읍니다。本劑는 胃壁을被覆保護하야 胃酸의刺戟을 없애고 過剩分泌된胃酸을吸收하며 分泌腺을收斂하야 胃液의分泌를抑制하는 珪酸알미뉴ㅣㅁ을主劑로한藥이므로 胃酸過多症은勿論、모든胃腸病을徹底的으로豫防하며 根治합니다。

効能 胃酸過多症、胃痛、胃潰瘍、속쓰림、신트림、胃가다루、胃痙攣、宿醉、惡醉、便秘症、車멀미、배멀미等其他

三日分(三十錢)七日分(一圓)十六日分(二圓) 一ケ月分(三圓五〇)二ケ月分(五圓)
全鮮藥房과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함
이外에小粒『노르모산』도잇슴

武田發賣品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ノルモザン錠　노르모산

39(1)756

日滿支食糧政策 再編成의緊要性

(一)

事變第三年에 政府、國民이모두豫想조차못하던「米穀不安」으로因한 食糧問題의危局에當面하여있다 朝鮮의南部一帶와 中國、四國、九州에걸친 十一縣의旱害로因하여 米穀의減收는 我國의食糧政策을根底로부터흔들어 戰時食糧問題는 焦眉의急務로되고 現下國內諸問題의中心問題化하여 早急하게根本對策의樹立이 切實하게要望되어 必然的으로 日滿支食糧政策의再編成에依한 綜合計劃確立과日滿支間의需給改善問題에까지 進展하게되었다。

從來外地及 滿洲方面의農業生産에對해서는 內地農業에있어서의勞働生産性의低位를 保護할必要上 直接間接으로 米作의生産抑制方針을堅持하고있었는데 最近와가치 外地方面의需給對策及 內地農業에의擴大는 이러한消極的調整方策을一轉하고 日滿食糧政策再編成의立場에서 米穀管理를 米作抑制政策으로부터 積極的增産政策에依한 調整實行時期에直面하게된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日本農林省企畫院을中心으로 內務、拓務、大藏의關係各省에서 戰時食糧政策을確保코자 內外地、滿支經濟提携方策을 考慮하는 食糧農産物의 擴充方策을 考慮하는 食糧增産聯絡協議會、日滿支食糧會議의開催가 準備되어있다 이것을 實現시키기爲해서는 內地米作偏重의修正、外地와滿支의 食糧生産을 擴大시키는것이 急務인것은 勿論이지만 現在에直面하고있는問題는 國內的으로의 食糧輸出으로因한 內地調整이며 食糧輸出에關한 內地의犧牲을 적게할必要가있다。

(二)

現在 內地의食料品輸出額은年三億圓에達하여 輸出總額의 二%를占하고 事變下의 全般的인輸出貿易萎縮傾向中에서 食料品만은 日滿의增加를보이고있다 그러나食料品輸出의 過半數는 圓貨圈向이며 特히 最近의輸出增加는 主로이方面으로의 增加에依하는것이다。重要輸出食料品으로서例擧되는것은 小麥粉、罐詰食料品、精糖、水産物、寒天、茶等인데 小麥粉과 精糖은거의 全部가滿洲、關東州支那向輸出이고、水産物、麥酒도 亦是大部分은 이方面向輸出이었다 罐詰類의 圓貨圈向輸出은 十一年의 五百九十萬圓으로부터 十二年의 千九百六萬圓으로 十三年의 千九百十七萬圓으로 一倍半의激增이었다。

이增加는 主로圓貨圈으로서 或은 治安確保工作上의 必要에따른것이지만 砂糖小麥粉은 滿支의買上價格이 割高이었으므로 그方面으로 流出되고 或은思惑으로因한 假需要가만흔때문에 이原因하여 內地의需給이 相當히 逼迫되어버린것도 事實이다。그러나이러한 事情은內地의 價格抑制에 伴하여 惹起된것으로 食料品輸出만에 限定되지안흔 必然의 結果이므로 政府에서는九·一八價格停止令의發動에際하여 九月卄五日부터 關、滿、支向輸出을調整

(三)

하게된것은當然한措置이며 輸出許可制에依하여今後의日滿支間의需給改善이 相當히期待되어있다。

다음은 滿洲、支那에있어서의 食糧生産計劃擴充化의 問題인데 近年 滿洲에있어서 食糧의需要는 顯著히 增大되고있다。米에對한需要는 別問題로하고라도 勞働者의增大와 그生活의向上에伴하여 麥粉의 消費量이非常히 增加되었는데 北滿의小麥은 比較的不作이어서 多額의 小麥粉을輸入치아니하여서는안될現狀이오 이需要에對해서 內地의 小麥生産은 增産計劃의 成果로因한 實收千二百萬石에達한 增收를보게는되었지만 滿洲의需要를 充當할만한餘力은 勿論없고 事變勃發以來로 外麥의輸入은 거의禁止狀態에있으므로 滿洲에있어서는 小麥의增産이 緊急한 要務이며 産米政策의 發展과 竝行하여 日滿支를通하여 自給自足이 確立되지 안하여서는안되게되었다。滿洲國內의 米消費는近年에 激增되었다。即大同二年(昭和八年)의 消費高百四十三萬石에對하여 昨十三年의 數는 三百六十萬石에達하였다 生産은同期間에 百二十三萬石으로부터 三百二十一萬石으로增加하고 이와相伴하여 輸入도 康德三年의七十萬八千石을 最高로 昨年에는 三十八萬七千石으로 減少되었는데 今年에 入해서는 朝鮮으로부터의 上半期의 輸入만으로도 二十萬石에 達하였으므로 다시 輸入에對한 依存性이 또大되는것을 보인다。

이와가치 年年히 그消費는 繁增됨에도 不拘하고 產米政策이 不振되지안는것은 朝鮮人의 移入에 依한 水田造成의 抑制、內地人의 移民獎勵等 國策의 移民獎勵과 기픈 關聯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 米作抑制方策은 急轉回가 必要하게되었고 産米政策은 內地供給에까지 發展되지 안하여서는 안되게 되었으며 또 어쩌든 滿洲國의 立地的條件에 있어서는 勞働力、肥料等의 點으로도 만흔지라도 充分히 可能性이 있는問題이다 日滿支를 通하는 食糧政策上의 見地에서 滿洲에 賦課된 計劃生産擴張에 充分히 견될수있는만큼의 生産能力을 가지고있는것이다。이러한 意味에서 日滿兩國의 食糧政策은 生産 價格 配給 消

(四)

費의 全般에있어서 一元的으로 統制되는 計劃의樹立은 食糧問題解決의 前提條件으로서 早急히 決定하여 實行할수있는것이다。

支那 特히 北支에 있어서의 戰爭은 北支에 있는 모든 生産關係를 根柢로부터 破壞한데다가 天災는 一層擴大시키어 [illegible]

十四米年度米消費 千七百萬石突破 飛躍的新記錄을示現

十一月一日 米穀現在高는十四日農林局으로부터發表되었는데 그數量은 二十九萬二千三百二十二石이다 이제이數字를가지고 十四米穀年度中의 米穀需給實績을計算해보면如左하다 (單位石)

▲供給

十三年度로부터持越	三八五、六六六
十三年米實收高	二四、一三八、八七四
十四米穀年度中輸入	五三
移入	三〇八、三五〇
計	二四、八三二、九四三

▲需要

十四米穀年度中輸出	八四二、六二九
移出	六、〇五一、八五四
十一月一日在米	二九二、三二二
計	七、一八六、八〇五

消費實績 一七、六四六、一三八

以上과가치 十四米穀年度中의消費實績은 一千七百六十四萬六千百三十八石으로 記錄的消費增大를 示하였다 從來의最高記錄이던 前年度의 消費高一千五百七十八萬石을 훨신超過한 數字는 자못重視되는 現象이라 하겠다

持越廿九萬二千石 比前年九萬三千石減

十一月一日現在의 米穀現在高는 總數量 二十九萬二千三百二十二石으로서 이것을 前年同期의 三十八萬五千六百六十六石에 比하면 九萬三千三百四十四石의 減少인바 産地別及 地方別內譯은 如左하다

一、産地別 (單位石)

朝鮮米	二七〇、四一六
內地米	七、四〇五
臺灣米	一四、五〇一
外國米	—
合計	二九二、三二二

二、地方別 (單位石)

	朝鮮米	內地米	臺灣米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	—	[illegible]
平南	[illegible]	—	—	[illegible]
平北	[illegible]	—	—	[illegible]
江原	[illegible]	—	—	[illegible]
咸南	[illegible]	—	—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道局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北鮮鐵道事務所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合計	二七〇、四一六	七、四〇五	一四、五〇一	二九二、三二二

米移入激增 輸移出四分一
米穀年度第一旬狀況

米穀年度初인 十一月上旬은新米出廻로 그輸移出이 相當한時期이나 今年만은 未曾有의旱害로因하여 出廻가대단히 적은關係로 米穀輸移出이 대단히減少되었다 上旬中의 米輸出은 一千二百五十三石으로 前年同期의 一萬七千六十一石에比하여 一萬五千八百八石의減少가되고 移出米에있어서는 더욱이甚하여 三萬九千九百二十一石으로서 前年同期의 十五萬九千四百二十三石의 移出에比하면 實로十一萬九千五百二石의減少로 그米輸移出의合計量보면 四萬一千一百七十四石으로 昨年同期의 그것에比하여 겨우四分의一에도 未及하는程度이엇다

그러나反面에 米移入의 數字가增加함을 보게되어 輸入은二石밧게안되나 移入에잇어서 一萬九千四百四十石으로서 前年同期의 그것에比하여 一萬六千六百七十三石의 激增이라한다

다음에 粟輸入高는 十一月上旬中에 一萬五千七百七十四石의 輸入으로써 昨年同期의 그것에比하여 一千四百五十六石의 增加程度이엇다

▲米輸移出高

輸出	移出	合計
一二五三	三九、九二一	四一、一七四

▲米輸移入高

輸入	移入	合計
二	一九、四四〇	一九、四四二

▲粟輸移入高

輸入	移入	合計
一五、七七四	—	一五、七七四

穀協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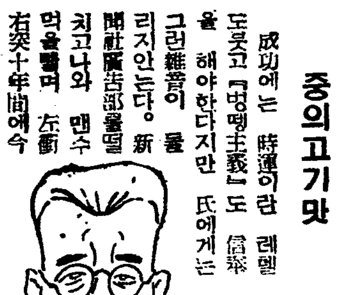
社團法人朝鮮穀物協會에서는 오는十八日午後一時부터 府內南大門通 金千代會館에서 第三回通常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엇다 附議事項은 左와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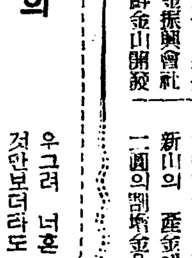
一、昭和十五年度豫算承認의件
二、定款變更의件
三、專任理事에關한件

更生水組는好調

更生水組의 今年度收納及組合費賦課는 總督府에서 灌漑、東拓을加하여 聯合會에서 査定을開始하여 京畿 平南北을 完了하엿는데 그成績은良好하여 一般水組의 今年度의 不良과對比하여 過去에잇서서의 不良水組로 되것은 거의水害旱魃을 맛는 地理에잇서 灌漑는 揚水이엇는데 今年의旱魃에는 貯水池側의 優良水組가 全滅悲慘한 狀況인데反하여 이揚水의 것은 極히 惠澤을입어 更生水組의 三十五組合 通計로서 前年의收納과 거의大差업는形勢이라한다

金用淳氏의 중의고기맛





成功에는 時運이란 레텔이 붓는다고 『벙뗑主義』도 信奉해야한다지만 氏에게는 그런雜音이 들리지안는다。新聞社廣告部를떨치고나와 맨주먹을뻘며 左衝右突十年間에 今日의大成을보인것은 壯하다 獨學으로 藥劑師、醫師免許를 얻엇습니다 만 인제는 걱정 업습니다。중이고기맛을보면 우그려 너흔것만보더라도 『약』으로일이로 된사람갓다。『조선서 만드는藥이라고 問題되지안튼 시절도 잇 어쩌다는格으로 그 제價値를 가지고잇스면 자연 알려지고마니깐요。요즘와서는 저의藥을 ○○에서도 使用하게됏습니다。』 自信滿滿이다。十年間그만흔 去來에떼인돈이라고 四十여錢뿐이라니 필시 開城純血種일게다。나이가四十前이라니 來日이더빗날게다。

米穀市場會社 廿五日創立 來月一日에營業開始

朝鮮米穀市場會社(資本金 五百萬圓四分의一拂込)에서는 創立準備가順調롭게 進行되어 오는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北米倉町穀物集會所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附議事項은 創立經過報告 定款案審議 役員選任 檢査報告 重役報酬等恒例의創立事項으로써 社長에는 矢島杉造氏 常務理事에는 田崎藤雄(朝取)高島俊雄(大邱)의 兩氏가內定되엇는데 同社의市場經營은 十二月一日부터 開始할豫定이라한다

商議專任會頭 會議所側人選에期待

朝鮮商工會議所專任會頭의 候補者에對해서는 여러가지로 話題에오르고잇는데 總督府로서는 過日의 朝鮮商議臨時總會에서 單只專任會頭就任의 要望意見을 開陳한데不過한다고傳하는바와 가치 某方面에對해서 就任을交涉中이라는 事實은 全然업다고 言明하엿다 總督府로서는 民間商工業者의 唯一無二한 自治機關으로서의 商工會議所 本來의使命에 鑑하여 會議所側에서 適當한人選을期待하고잇는것이어서 會議所側에서 人選難等으로 因하여 當局에 依賴가잇는 境遇에는 勞力을 아끼지안흘方針으로서 그推移에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다한다

臺灣米도引上

【臺北電話同盟】內地米最高販賣價格引上에 伴하여 臺灣總督府에서는 過般來臺灣에잇는 管理米買入價格 再引上에對하여 協議中이던바 드디어 오는十七日에 第二回臺灣米 移出管理委員會를開催하고

一、十四年 第二期作 米買入價格修正의件
一、十五年 第一期作 米買入價格決定의件

을附議하여 相當한 大幅의引上을 斷行하기로 決定하엿다

朝鮮産米、雜穀 配給統制强化

政府에서는 糧食消費上强制制度의創設等에依하여 米穀의 管理를 斷行하기로되엇는데 朝鮮에서도 米穀政策에 順應하여 朝鮮內의 米穀의 統制價格制를强化하기로決定하고 目下農林局에서 極力成案을 急히하고잇는데 朝鮮과內地와는 事情이다르므로 單純히 米穀의 統制만으로서는 現下의食糧不安을 一掃할수업는事情이 잇는데鑑하여 더나가서 米、雜穀等의 全食糧에 亘한綜合的計劃을 樹立함으로써 全食糧의 統制를斷行하여 現下의食糧不安을 一掃하고 戰時食糧對策의 完璧을 期하기로되엇다 그리고統制의 對象으로되는 것은 朝鮮産의米麥類 粟黍 豆類 등을비롯하여 輸移入米 雜穀에對해서는 이미 中央配給組合을創設하고 事業을 進行시키고잇스므로 今後는 朝鮮內産米雜穀의統制가問題로된다 右에對해서는 出荷 配給 二方面에 對하여 强力한統制를 加할것으로 보인다 또 朝鮮內의 食糧消費內容은 昭和十二年現在로도 雜穀二千四百五十三萬石 米一千二百五十九萬石으로 米三 雜穀六의率이다

探鑛申請漸增 豫定計劃擴大

朝鮮金山開發會社의 現在申請狀況은 委託探鑛八十件 探鑛資金二百件에 達하는데 아직도續出할狀態이며 그金融申込中 決定된後 申請中의것이 三十件이어서 逐次增加되어 同社로서는 今後 이러케 申込이 增加되면 豫定計劃을 一層擴大하려고 目下研究中이라한다

鮮銀金持込 平均十二萬六千圓

鮮銀에서는 産金及産金獎勵金制度의 實施에伴하여 若干增加 되었으나 其後의 持込는 不變이어서 目下每日平均 十二萬六千圓가량으로 産金制度의 影響은 거의업는 狀態이다 또十月一日부터 實施된 全朝鮮金買上에서 十月末日現在의報告를 徵收하고잇는데 鮮銀本店取扱分은 二千二百八十九件(鮮銀取扱分은 同日)으로 此中鮮銀以外의 取扱에서 取扱한分은 三四割程度인바 [illegible] 報告가 아직들어오지 아니하엿다 한다

産金業者懇談會

朝鮮鑛業會主催로 十五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鑛業者가 集合하여 今回實施된 産金制度에對하여 當局의 說明을 聽取하고 懇談을 하기로되엇다한다

朝取地株幹部懇談

朝鮮取引所幹部와 地場有力會社首腦部와의 懇談會는 十三日午後六時부터 朝鮮호텔에서 開催하엿는데 會社側에서는 朝石木村、製鍊戶澤、漢江水電林、京春鹽川、마네小笠、朝陽鑛業鈴木、國産自動車今村、小林鑛業富松의 諸氏 朝取에서는 荒井秋山의 正副理事長 取引員小杉、新田、內海、山源等 有力取引員이 列席하여 朝鮮內의 有力地株의 內地市場進出及 長期上場에 關한 懇談이잇섯다

○타이야配給組合總會 全朝鮮自動車타이야配給組合에서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 京城호텔에서 總會를開催『小型自動車타이야配給統制에關한件』『大型自動車타이야改善에關한件』의 二議案에 對하여 協議를하엿다고

賣買價格反騰으로 金山賣買熱促進 增産分措置明示苦待

産金增産을 目標로하는 新産金制度의 實施에 對해서는 同規則의內容이 자못複雜多岐함으로 産金業者들은目下硏究中인데 이것으로 밧는 影響은 아직具體的으로 把握할수 업는現狀이나 大體로 新制度의 實施로 如左한 影響이 豫想된다한다

一、全般的으로 增産熱을 昂揚시키는結果 日本産金振興會社에의 融資申込 朝鮮金山開發會社에의 委託探鑛 或은 探鑛資金의 申込殺到가 現在以上으로 旺盛해질것이다

一、同制度는 昭和十二年度의 産金額을 基準으로하여 增加産金分에 對하여 割增金을 交付하기로되엇는데 新山에 對한措置는 大藏大臣이 數量을 指定한다하여 不明瞭하나 大體로 鑛山單位에다가 基準을 두어 新山의 産金에 對해서는 全部 一圓의 割增金을 주게된다면 그結果 採算不合으로 傍觀되던 新山이 積極的으로 開發될것이다

一、그結果 現在 多少低落傾向에잇는 金山의 賣買價格이 다시 反騰되고 引延하여는 賣買熱을 旺盛케할것이다

一、但割增金交付資格이 會社全體의 産金을 基準으로하지안코 鑛山單位에다가 基準을 둔 때문에 老齡金山에 對한積極的探掘은 中止되고 新金山에 全力이 集中될것이므로 全體의 産金額으로서는 老齡의 旣採掘 金山의 消極化만큼 減少되는 結果가 會社에 따라서는 表現될것이다

또 同制度에 伴하는 産金減量 認定規則이 近日中에 公布될터인데 어떤 理由에 依하여 基準産金量 以上의 增産分에 對한 具體的 措置가 明示될것이므로 産金業者는 그公布에 만흔 期待를 두고잇다

磅貨二重價格制放棄 自由市場에鞘寄必至

【紐育十五日同盟】紐育타임스紙 倫敦特電에依하면 磅貨의 暴落에 鑑하여 英國當局은 此際磅貨의 現在內外에잇서서의 二重價格政策을 放棄하고 새로운手段을 取하라는 意見이 有力化하고 잇다 第一次歐洲大戰中에 잇서서도 磅貨의 對米價는 一弗의 一本으로 終始하여 顯著히 磅貨의 威信을 昂揚시키기에 成功하엿스나 今次大戰에잇서서의 磅貨는 政府에서 公定하는 市場外에 市勢가 自由高低하는 自由市場이 存續하여잇스므로 이래서는 磅貨의 公定市勢는 早晩間 自由市場에 鞘寄치 안흘수업다는 觀念이 잇는것이다

京城化學創立

京城化學工業株式會社(資本金二百萬圓 二分의一拂込)는 十日 大阪에서 發起人總會를開催하고 第一回拂込을完了하여 創立되엇는데 重役의陣容은 如左히決定되엇다

▲取締役社長 酒見恒太郎(京城在) ▲專務取締役 弘井雄一郎 ▲取締役 下田伊三郎 山中應太郎 兒玉正雄 ▲監査役 岩井豐治(京城在) 河本驛藏 ▲支配人 鹿野彦吉(京城在)

寸鐵

▼十四米穀年度의 米消費는 忽然 一千七百六十四萬六千石
▼比前年度 近二百萬石의 飛躍的增大。
▼이러케 만히먹던 사람이 [illegible]
▼朝鮮米穀市場會社는 十二月一日부터 開業한다고。
▼産金制度實施로 [illegible]
▼日本産金振興會社가치 有名無實로 되지나안흘가?

市場感

株 昨日은 東新이 오래간만에 若干活氣를 呈示하엿스나 곳 凡談。歐洲戰局變遷等의 環境下에 ▲明年度의 大增稅、日米會談等으로 東新이 活躍할餘地는 極히 局限 ▲現在英佛에서는 北支에서 撤兵하엿스나 米國만은 撤兵하지안는다고 ▲日米市勢는 日米會談의 成果如何에 左右될모양 ◆東新百七十圓에는 當然히 當局의 抑壓이 내릴테니 戾는絕對賣라고 主張하는 論者도不無

現物續進

現物은三、三流株暈中心으로 依然買氣不衰하여서 昭和製鐵은 昨日來로 十五圓高인 五十圓까지 暍上되고 日本鑛工新도 七十二圓五十錢 부르고잇섯다 其他東洋紡續은 二百二圓五로好況이엇스며 朝鮮物도 一般으로 買氣가擴烈하여 國産自動車는 三十一圓、同新二十八圓五、小林鑛業은七十二圓、同新七十圓五까지 繼續上進되엇다。製鍊은五十圓五、滿洲加里가 二十圓五、滿洲物은 滿洲特産工業이 七十五圓가량이엇다

株式 舊態還元 前場少堅 凡調

今日의市勢 十四日

今朝는 昨日後場의 [illegible] 東新前日比高인百五 [illegible]

日米會談重視 後場凡調

後場은 東新十四圓三、鐘新一高인 百十七圓丁에 寄付된後 東新은小浮動商狀을呈하다가 結局東新百五十四圓三、鐘新百十六圓九에大引만이 二低인 百五十四圓一에寄付後同調裡에 推移하엿다。

昨日後場에는 前場續進의뒤를이어 依然急落을 告하여 東新은다시 百五十三圓臺로 還元되어 百六十圓을 云爲하던 買方으로하여금 顯然케하엿는데 歐洲戰局의 不透明과 日米會談에 對한 透觀難으로 一個月餘이나 浮動商狀을 묵하다가 前週土曜부터 反騰을開始하엿스므로 一般으로 相當한 期待를 가지고 잇는모양이나 아직 環境그自體에 顯然치못한 點이 만허 戾만 잇스면 대번에 實叩되고 말어 保合分歧는 未到이라는 感이濃厚하다 英佛側에서는 天津에서 撤兵하는等 極東에 對한 態度를 相當히變改하고잇스나 米國側에서는 依然頑迷한 態度를持續하고 더욱이目下進行中의 日米會談의 前途도 逆睹不能인點이잇서 東新은 當分間 또다시 浮動裡에 推移하지안흘가하고잇섯다

今日財界 十四日

◆米穀 (單位錢) 玄米 [illegible] / 七分搗白米小賣價 [illegible]
◆雜穀 (單位錢) 滿粟、大豆、大麥(秋)、小麥(新舊)、京城金(叉)(買) [illegible] 不變
◆株 (單位十錢) 朝新 / 東新 / 鐘紡新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匣) 大阪綿布 / 綿花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

銀行券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 ◆東京金利◆ / ◆大阪金利◆ [illegible]
鋼油粕麥粉 /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 ◆京城市中金銀價◆ / ◆東京金銀價◆ / ◆金買入價◆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株價◆ / 正租 [illegible]
雜穀 / ◆京城雜穀◆ /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京城物價 十四日

◆白米 / ◆綿織物 / ◆交織物 / ◆毛絲 / ◆內地炭 / ◆朝鮮炭 / ◆撫順炭 / ◆京城瓦斯木炭 / ◆石油 / ◆砂糖 / ◆鐵物 / ◆木材 / ◆紙物類 / ◆染料 / ◆皮類 / ◆牛皮 [illegible]

今日現株市勢(正午調)

◇朝鮮內株式 / ◇內地株式 / ◇滿支株式 [illegible]

株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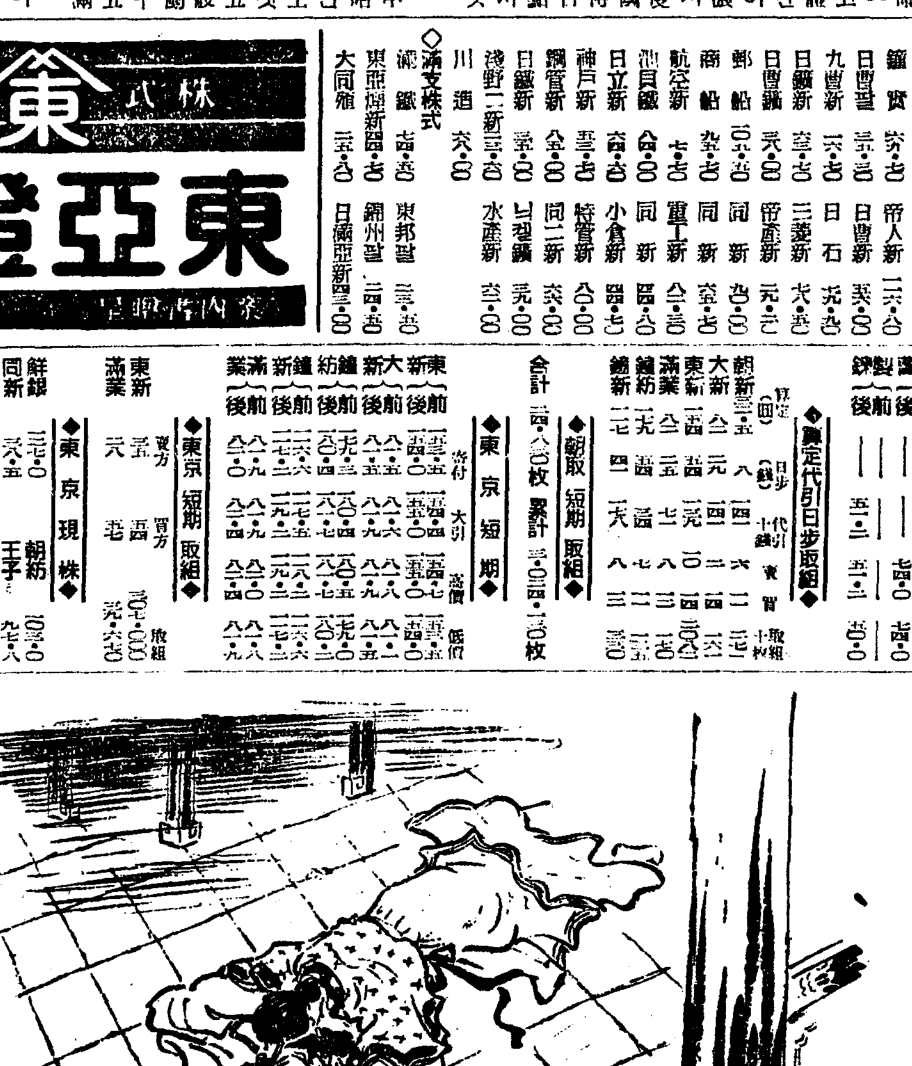
◆朝取短期◆ / ◆實定代引日步取組◆ / ◆朝取短期取組◆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 ◆大阪短期◆ / ◆大阪短期取組◆ / ◆大阪長期◆ [illegible]

棉花 / 生糸

大阪 [illegible] / 橫濱 [illegible]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illegible]

▲東京國債 ▲甲號五分一〇一、[illegible] ▲一回四分 一〇三、[illegible] ▲二回四分 一〇三、四五 ▲米債五分半 四〇七、〇〇



三國志 【13】

韓龍雲 譯
熊 畫

宦官의禍 (三)

하태후가 동태후의 권세를 전단히함을 보고 궁중에 잔치를 베풀고 동태후를 청하여 술이 반쯤 취한뒤에 하태후가 몸을 일으켜 술잔을 바들고 두번절하며

『우리는 다 부인이라 정사에 참예함이 마땅하지 아니라 옛적에 여후(呂后)가 조정권세를 처단히 하다가 겨레 천여명이 다 죽은지라 이제 우리는 기피 궁중에 잇고 조정의 큰일은 대신에게 맛겨 스스로 상의하게하면 나라의 다행이 되겟나니다』

하니 동태후가 크게노하여

『하후는 왕미인을 투기하여 독약으로 죽이고 이제 임금된 아들과 오래비 하진의 권세를 믿고 함부로 말을하니 내가 표기장군을 명하여 하진의 머리를 베이기는 손바닥을 뒤집과 갓다』

하거늘 하태후가 또한노하여

『내가 조흔말로 권하거늘 무엇을 노여하나니까』

하니 동태후 또말하되

『하후의집은 백정의 무리라 무슨 소견이 잇스리오』

하여 두궁이 서로 다투는지라 장양등이 권하여 각각 궁으로 돌아가게 하엿다。

하태후가 밤에 하진을 궁으로 불러 동태후와 한일을 말한데 하진이 나가서 삼공을 청하여 의론하고 어른날 조회에 다른신하를 시켜서 아뢰되

『동태후는 원래 번비(藩妃)라 오래 궁중에 잇는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하간(河間)에 안치하는것이 합당하다』

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을보내 어 동태후를 호송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로 표기장군 동중의 집을 에우고 인수를 빼앗스니 동중이 일이 급함을 알고 뒷방에서 목을찔러 죽으지라 그집에서 초상을 발포하니 군사가 비로소 허러젓다。

장양과 단규가 동태후 일파가 쇠함을 보고 금은보패로 하진의아우 하묘(苗)와 그어머니 무양군(舞陽君)을 사괴여 그로하여금 언제든지 하태후에게 가까이돌며 조흔말로 저의들의 일을 덥허주게하니 이로 인하여 십상시가 또 가까이 괴이게 되엇다。

유월에 하진이 가만히 사람을보내어 독약으로 동태후를 하간에서 죽이고 관을 서울로가저다가 문릉(文陵)에 장사지낼새 하진은 병을일컷고 나가지 아니하엿다。사예교위 원소가 진에게 말하되

『장양 단규등이 박게 말을 퍼뜨리되 공이 동태후를 죽이고 큰일을 꾀하고자한다 하니 이때를타서 환관의 무리를 베이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큰 화가 될지라 예적에 두무(竇武)가 내시등을 베이고자 하다가 비밀이 한로되어 도리어 앙화를 바든지라 이제 공의 형제가 중요한 벼슬에잇고 다 주걸스런 인물이라 만일 힘을다하면 일이 손아귀에 잇스니 이는 하늘이 도읍는때라 가히 이를 수가 잇나이다。』

하거늘 하진이 다시 상의하자 하엿더니 가까이잇던 사람이 가만히 장양에게 알린지라 장양이 하묘에게 말하고 뇌물을 만히보내니 하묘가 하태후를보고 말하되

『대장군이 새임금을 섬기매 어진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죽이고 치는일만 힘써서 무단히 십상시를 죽이고자하니 이는 어지러운것을 취하는 길이니다』

하니 하태후가 그말을 올히 여기엇다가 하진이 들어와 환관을 베일말을 하니 하태후가

『환관이 궁중을 마타 보살피는것은 한나라의 나려오는 전례요 선제께서 처음으로 천하를 바리시매 네가 옛신하를 베이고자 하는것은 종묘를 중히여기는것이 아니란』

하니 하진은 본래 결단성 업는사람이라 대답만 하고 물러나갓다。